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한 승 희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김 명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한 승 희

인 준 서

한승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미국의 재즈작곡학부 커리큘럼을 조사하였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커리큘럼 인식조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에 개설된 4년제 청운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김천대학교, 2년제는 경북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계명대학교를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미국 동부지역의 실용음악학과 버클리 음대,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재즈작곡 커리큘럼을 알아보았고, 서울 경기지역의 실용음악학과 재학생 555명 졸업생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내 4년제 대학 3곳, 2년제 대학 3곳을 각각 공통된 교과목과 특정 교과목을 분류하였으며, 미국대학의 재즈 작곡학부 커리큘럼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 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세분류로 나누어 커리큘럼에 관한 문항, 전공수업(이론)에 관한 문항, 전공실기(합주, 앙상블)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실용음악학과 4년제, 2년제 학교는 전공실기가 매학기 개설이 되어 있었고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용음악학과는 전공에 따른 커리큘럼이 모두 상이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둘째, 국내 실용음악학과 4년제, 2년제 학교는 시창·청음, 재즈 화성학, 실용음악 편곡 등은 모두 개설이 되고 특정 교과목으로 청운대학교 포트폴리오 제작, 동덕여대 클래식기타, 김천대 콘서트 콰이어, 부산예술대 프로젝트 실습,

계명대 실용음악세미나 등이 나타났다.

미국의 실용음악학과는 기초건반, 편곡 등은 학교마다 개설이 되어있었고 특정 교과목이 많이 나타났는데 버클리 음대는 다양한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NYU는 실용음악과 학생이 타전공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The University of the Arts는 인문과목과 과학연구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 국내와의 차이점으로 보여졌다.

셋째, 커리큘럼에 관한 문항으로 커리큘럼 이론, 실기의 비율의 적절성에 대해 재학생 '보통이다'가 49.9%, 졸업생 66%가 그렇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전공수업(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전공수업의 형태에 재학생 '토론식 학습'이 49.9%, 졸업생 '교수 강의'로 나타났고, 전공실기 레슨 여부에 대해 재학생 '보통이다'가 37.2%, 졸업생 '그렇지 않다'가 33.9%로 나타나 재학생은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졸업생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은 전공에 따른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마다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겠다. 또한 재학생의 답변이 졸업생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실용음악의 커리큘럼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5
5. 선행연구의 고찰	5

II. 이론적 배경

1. 실용음악의 정의	9
2. 국내 대중음악의 역사	10
3. 국내 실용음악과 현황	17
4. 미국 실용음악과 현황	26

III. 국내 실용음악 커리큘럼

1. 국내대학 실용음악 커리큘럼	30
가. 4년제 실용음악학과	30
나. 2년제 실용음악학과	31
다. 학교별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비교	32

2. 미국대학 실용음악 커리큘럼	39
가. 미국대학 실용음악학과	39
나. 미국대학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비교	48
3. 국내대학 실용음악 커리큘럼의 인식 조사	55
가. 연구대상	55
나. 조사방법	55
 IV. 결론	 7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실용음악과 커리큘럼 인식 조사 설문지

표 목 차

<표 II-1> 국내 실용음악과 4년제 대학 현황	18
<표 II-2 > 실용음악과 4년제 지역 현황	21
<표 II-3> 실용음악과 2(3)년제 대학 현황	23
<표 II-4> 실용음악과 2(3)년제 지역 현황	25
<표 II-5> 미국 실용음악과 현황	26
<표 III-1> 4년제 학교별 커리큘럼 비교	33
<표 III-1-1> 4년제 학교별 특정 커리큘럼	35
<표 III-2> 2년제 학교별 커리큘럼 비교	36
<표 III-2-1> 2년제 학교별 특정 커리큘럼	37
<표 III-3> 버클리 음악대학 음악학부	39
<표 III-4> NYU 예술학부	42
<표 III-5> NYU 학점 구성표	45
<표 III-6> The University of the Arts 의 공연예술학부	46
<표 III-7> 학교별 재즈작곡학부 커리큘럼 비교	48
<표 III-7-1> 학교별 재즈작곡학부 특정 커리큘럼	50
<표 III-7-2> 동덕여자대학교 ·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커리큘럼 비교	52
<표 III-8> 실용음악 커리큘럼 설문지의 문항	55
<표 III-9> 커리큘럼 이론, 실기 비율의 적절성	56
<표 III-10>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과정	57
<표 III-11> 전공별 커리큘럼 개설 여부	57
<표 III-12> 교과목에 따른 교재의 활용	58

<표 III-13> 커리큘럼에 따른 학점 구성	59
<표 III-14> 학교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의 여부	59
<표 III-15> 커리큘럼의 전문인 양성	60
<표 III-16> 필요 또는 불필요에 대한 과목의 필요성	61
<표 III-17> 도움 되는 커리큘럼	62
<표 III-18> 전공 수업의 형태	63
<표 III-19> 전공 과목 수업시간	63
<표 III-20> 전공 과목 수강인원수	64
<표 III-21>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	65
<표 III-22>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의 이해	65
<표 III-23> 수업의 자료 활용도	66
<표 III-24> 학업 성취도 평가 반영 여부	67
<표 III-25> 보충, 심화되어야 할 과목	67
<표 III-26> 전공 실기 레슨 여부	68
<표 III-27> 전공 실기 수업시간	69
<표 III-28> 전공 실기의 외부공연 수업 여부	70
<표 III-29> 전공 실기의 실력향상	71
<표 III-30> 전공실기 수업 요구사항	7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의 대중음악은 K-POP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가에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문화콘텐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은 199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의 열풍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중음악에 대한 사랑은 뜨거웠다. 하지만 이런 열풍은 국내에서만 존재했었다. 현재는 한류라는 바람을 타고서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젠 K-POP으로 당당히 대중음악이 세계 여러나라 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음악이 열풍을 타면서 방송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보이스 코리아, top 밴드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훗날 2010년대는 ‘오디션의 시대’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가수 오디션뿐 아니라 배우 오디션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회사 직원까지 오디션으로 뽑는 세상이 왔다. 오디션 방송중에서도 슈퍼스타K(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대로 본딴)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 수록 강풍이 되고 폭풍이 됐다. 케이블 방송으로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고 술한 화제를 낳았다. 최근 정계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슈스케’식으로 선발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는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칸 아이돌’, ‘엑스팩터’ 등으로 대표되는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국과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슈스케 역시 이런 화제성을 근거로 한국에

반영한 것일 뿐이다.¹⁾ 이렇게 대중음악은 해외에선 K-POP 열풍 국내에선 오디션 열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얼마전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K-POP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영을 하였다. 칠레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보여 주고 있었는데 칠레의 청년들이 한국의 대중음악에 심취해 있었다. 상점에서는 태극기가 날개 돋힌 듯 팔리고 떡볶이를 먹으며 막걸리를 마시는 광경은 단지 그들이 음악을 좋아할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까지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렇게 K-POP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라들에서도 음악을 통하여 친숙하여지고 우리의 문화도 거리낌 없이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²⁾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증명하듯 K-POP의 열기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러시아에선 K-POP 전문 잡지까지 창간됐다고 한다. K-POP이 드라마와 한국 대중문화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전문 잡지 '케이 플러스(K plus)' 창간호가 모스크바에서 출간되었다. 잡지 창간은 K-POP 및 한국 드라마에 빠진 현지 여성 한류 팬 5명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주러 한국 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직접 글을 쓰거나 외부 필진의 글을 받아 42쪽 분량의 창간호 900여 부를 발간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K-POP 열기가 러시아 젊은이들 스스로 K-POP 전문 잡지를 만드는 수준까지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³⁾ 전세계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현상들은 대중음악을 학문으로 배우기 위한 학생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대학입시에서의 실용음악학과는 가장 많이 신설되고 있는 인기학과이며 경쟁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고 대학내에서도 실용음악학과에 많은 재원과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1) 김학선(2012) “K-POP 세계를 홀리다” 을유문화사 p389.

2) kbs 다큐멘터리 3일, 2012.09.02 “아마르 꼬레아 - 칠레 K-POP 콘테스트”.

3) ytn 연합뉴스, 2012.09.30 “모스크바서 K-PP 전문잡지 창간”.

실용음악학과는 1988년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처음으로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실용음악학과, 생활음악학과, 대중음악학과, 영상음악학 등의 명칭으로 학과 이름은 각기 다르나 내부적으로는 모두 실용음악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학과가 여러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한국의 대중음악, 뮤지컬(musical), 재즈(jazz), 팝(pop), 록(rock), 씨씨엠(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및 전공과 관련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각종 악기, 그 밖에 이 분야의 음악을 녹음 및 제작하는 음향엔지니어 등등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많은 대학들이 제공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대학에서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실용음악학과에 대한 논문은 국내에서는 역사가 길지 않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커리큘럼에 관한 논문은 주로 안용성⁴⁾, 황정희⁵⁾, 김진수⁶⁾, 신계열⁷⁾, 이정선⁸⁾이 국내 커리큘럼을 연구하였고 국외의 실용음악학과에 관한 연구는 버클리 음악대학에 관한 김은섭⁹⁾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른 학기별 전공과제와 앙상블 공연방식과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와 미국의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의 구성을 비교분석하고, 설문지를 통해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있다.

4) 안용성(2007), 국내·외 실용음악과 교과과정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5) 황정희(2008),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 일시 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 논문.

6) 김진수(2011),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 음악학 석사논문.

7) 신계열(2011), 학제에 따른 실용음악학과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 음악학 석사논문.

8) 이정선(2010),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 발달 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 김은섭(2006) 버클리음악대학의 교육체계 연구 =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Berklee College of Music, 음악과 민족, No.31.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의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미국 대학 실용음악학과의 JAZZ 작곡 커리큘럼 구성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대학의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과 미국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 조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중 1990년대에 개설된 4년제, 2년제 실용음악학과 3곳을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검색시 가장 먼저 나오는 미국 동부 지역의 유명한 JAZZ 작곡 학부 3곳을 선정하여 연구 할 것이다.

셋째, 설문지를 통해 실용음악학과 전공자들의 인식조사를 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내는 실용음악학과의 전공이 여러분야(보컬,악기,전공,레코딩)가 있지만 미국은 Jazz학부만을 보았다.

5.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다.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 김진수는 실용음악과가 개설 된 고등학교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여 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용음악과 관련된 서적 및 관련 논문을 참고하고 각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쇄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10)실용음악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별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었으며, 실용음악 대학 커리큘럼의 역사를 연구 조사하였다.

한국 대학 실용음악 교육제도 발달과정 연구한 이정선은 외국 대학의 실용음악 변천과정은 무엇이며 한국 대학의 실용음악 교육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한국대학 실용음악 교육제도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대학실용음악 교육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발전하였나?, 한국 실용음악 교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한국대학의 실용음악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현황은 무엇인가?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국외는 미국, 영

10) 김진수(2011), 전계서.

국, 일본, 국내는 2,4년제의 실용음악학과의 실용음악 교육제도의 변천사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한 손 옥은 2년제와 4년제 실용음악대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현대학의 실용음악학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로는 실용음악 교과과정의 변천-서울예대를 중심으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국내의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비교와 문제점을 선정한뒤 버클리 음대의 커리큘럼을 기술하였다. 2년제와 4년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2년제는 교과과정의 변천과정을 서울예대만 기술한 것이 아쉬웠다.¹²⁾

대학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연구한 박선영은 국내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을 각각 4개 대학으로 선정하여 실용음악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실용음악 교육현황을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설문지를 통한 실용음악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실용음악의 교육프로그램을 간단히 나열하였다. 국내 대학은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¹³⁾

국내·외의 실용음악 교과과정의 연구한 안용성은 국내·외 대중음악의 역사적 고찰, 국내 대중음악의 변천 과정, 국외 대중음악의 역사와 국내 대중음악학과의 현황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국내 대중음악의 역사와 변천과정과 현황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하였고 국외 대중음악의 현황으로는 버클리 음대와 University of the Arts 두곳을 간단히 나열해 놓았다.¹⁴⁾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 입시대학을 중심으로 에서는 주로 입시를 중

11) 이정선(2010), 전게서.

12) 손 옥(2002),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석사논문.

13) 박선영(2007), “ 대학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부산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14) 안용성(2007), 전게서.

심으로 연구한 황정희는 실용음악 교육제도를 소개한 후 국내의 입시제도와 국외는 미국의 버클리 음대와 일본 TSM 제도에 대해 연구 하였고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¹⁵⁾

7학년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 활용방안 연구한 김선주는 교과서에는 대중음악의 장르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조차 서술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중음악이 학교교육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 소재 인데도 현장 교사들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대중음악을 활용한 교육은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왔다. 2007년 개정 음악교육과정에 있는 7학년 16종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 수록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곡을 선정하여, 수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방법을 설계하였다.¹⁶⁾ 비교적 대중음악의 활용방안에 대해 교수 학습방법과 결론에서는 비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자세히 쓰여 있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대중음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록 비율과 장르별로 구분해 보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떤 곡을 가지고 학습지도안을 만들어본다거나 그 곡을 교과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점은 없었다. 박선영의 대학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에서는 국내간의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실용음악학과의 재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에 대해 연구 하였고 국내 커리큘럼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었다.¹⁷⁾

지금까지의 선행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실용음악 교육제도의 변천사를 알아보는 연구, 국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을 연구 하며 국외 실용음악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미국의 버클리음대와 일본의

15) 황정희(2008), 전게서.

16) 김선주(2011), “7학년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 박선영(2007), 전게서.

TSM 과정등 간략히 소개하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에 개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국내 4년제와 2년제의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한 후, 미국의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설문지를 통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을 통한 커리큘럼 인식조사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실용음악의 정의와 국내 대중음악의 역사, 국내 실용음악과 등을 알아볼 것이다.

1. 실용음악의 정의

1920년대에 들어서 실용음악은 당시 적극적으로 음악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간격을 좁히고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떤 장르간의 구분이나 양식적·기법적인 특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청중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모든 장르와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과 사회의 편집인으로 실용음악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표했던 한스 뵘트허¹⁸⁾는 실용음악을 “아마추어와 애호가를 위한 음악, 민중을 위한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음악”이라고 정의한다. 이 광범위한 정의는 실용음악의 개념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 어떤 한 개념이 정의라면 일반성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뵘트허의 정의에는 특수성이 아예 부인 되고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는(횡적인) 일반인의 음악활동 전체를 통틀어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역사적으로 볼 때, 실용음악이라는 개념은 빠르게는 이미 18세기말 또는 19세기부터 성립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기능도 없는 음악이란 생각할 수 없었고, 음악이라면 모두 실용성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따로 실용음악이라

18) Hans Boettcher.

19) 이경분 (2002) “1920~30년대의 실용음악”, 민족음악학회, 23권 p46.

고 칭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말부터 점차 기능이나 목적보다 “음악적 진보”나 미학적인 작품 내적 가치들이 중요해지면서 개성적인 자유티음악과 기능적인 실용음악의 분리가 진행되어 왔다.

현대에서 실용음악의 의미는 단순히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음악이 아닌, 실용성을 가진 전문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음악 즉, 영상음악·컴퓨터음악·무대음악·기능음악 등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의 총칭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대중음악의 역사

대중음악이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이제 유효하지 않는데, 그것은 현재 대중음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학과가 생기고, 대중음악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과 수많은 소논문들이 간행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대중음악의 연구가 20 여년전과 비교하여 크게 진척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중음악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주로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대중음악의 역사나 이론은 재즈의 역사나 이론에 치중되어 있어서 실제 대중음악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대중음악에 대한 저서는 평론이나 가요계 뒷이야기에 치우쳐 있다. 이렇다 할 대중음악 통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대중음악 연구의 현주소를 알려준다.²⁰⁾

20) 장유정(2008), “한국 대중음악사 기술을 위한 기초작업: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대중음악학회, 통권 1호 p78.

가. 대중음악의 기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유행창가가 음반화 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밝혀진 바로 유행창가가 수록된 가장 오래된 음반은 1925년 일본 축음기 상회에서 낸 음반이다. 박채선·이류색이 부른 <이 풍진 세월>(창가집에 실린 제목으로는 <청년경계가>)이 음반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유행창가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만든 작품으로 최초로 음반화된 대중가요는 1927년에 발표되고 1929년에 음반화된 낙화 유수로부터 보아야 한다. 즉 이는 1920년대 말에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²¹⁾

SP음반(Standard Play Record)은 한국 전쟁 당시 전쟁 가요의 역할을 했다. ‘소리나는 마술상자’라고 해서 ‘소리판’으로 불리기도 했던 음반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손으로 축음기를 돌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선야곡>, <굳세어라 금순아>, <경상도 아가씨>, <아내의 노래>, <임계신 전선> 등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며 대포소리와 함께 한밤도에 넘쳐 흘렀다. ²²⁾

나. 1970~1980년대 대중음악 형성과 문화

1964년 키 보이스(Key boys)가 그룹사운드 최초의 앨범인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를 발표한 이후 많은 수의 그룹사운드들이 탄생했다.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포크는 시들해지고 포크 가수는 대거 대중가요 가수가 된다. (송창식, 어니언스, 박인회, 김세환, 윤형주 등). 펄시스터즈와 김추자를 통해 고고음악이 히트하였지만 신중현은 1975년 활동정지를 당함으로써 신중현의 음악

21) 이영미(2000), “한국 대중가요사”, 서울 서초: 시공사 p49~50.재인용.

22) 박성서(2010), “한국 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책이있는 풍경 p21.

은 휴지기에 들어간다. 1976년 조용필로 시작된 세련되고 흥겨운 트로트 고고의 바람이 가요계를 휩쓴다. 고고가 주류가요의 대표적 리듬이 되어 트로트를 빛내고 있을 때, ‘산울림’에 의해 고고 리듬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축제기간마다 노래 장기자랑대회가 있었는데 1977년에 MBC에 의해 대학축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제작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학가요제이다. 1970년대 말 이미자, 송대관 트로트 가수들이 세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대학가요제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성황리에 치루어 졌다.²³⁾

1980년대 들어서 이정선, 정태춘, 조동진과 대학가요제 출신의 작은 거인, 송골매 등이 좋은 음반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1985년 들국화가 앨범을 발표하기까지 10년간은 “한국대중음악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뮤지션들이 멸종된 시기였다. 엄밀히 말해서 들국화의 데뷔 앨범전에 이주원이 이끄는 ‘따로 또 같이’의 2집 (1984)이 창작, 세션, 녹음 면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진정한 새출발 이었다.²⁴⁾

다. 1990년대 대중음악 형성과 문화

일제시대부터 대중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트로트는 해방후에도 이미자, 배호, 남진과 나훈아, 조용필, 최현, 심수봉, 윤수일, 주현미, 현철, 설운도, 태진아, 김지애에 이르기까지 모든 트로트 가수들은 기성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인기가 있었다. 193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트로트가 주류가요의 중심이 될 수 있던 것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양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의

23) 이혜숙, 손석(2003), “한국 대중음악사”, 리즈엔북, p311.

24) 박준흠(2008), “한국 음악창작자의 역사”, 한울, p234.

양분화가 이루어진다.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1990년대는 실질적으로 1992년부터 시작된다. 그해 대중예술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다루는 대중가요 분야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가 있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기 전에 1992년 초에 뉴키즈 온더 블록 (New Kids on The Block)의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모인 1만 6천명의 10대 팬들의 열광으로 채워진 공연이었다. 비싼 입장료와 격렬한 반응이 주를 이루었는데, 흥분한 팬들이 넘어 지면서 그중 한명이 압사당하는 대형사고가 터지고 만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신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고 두어 달 만에 최고의 인기 팀으로 부상하면서 대중가요계의 흐름을 발라드에서 댄스 음악으로 바꾸어 놓았다.²⁵⁾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청년 대중음악문화의 수용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층이 전적으로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신세대’, ‘X세대’로 지칭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신들의 세대 정체성을 주로 문화산물의 소비를 통해서 표출하게 된다. 이들은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중산층이라는 계층적 특성을 띤다. 그러나 연령에서는 10대인 청소년층이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중심 수용층의 연령이 더욱 낮아 졌다.²⁶⁾

라. 2000년 ~ 현재 대중음악 형성과 문화

아이돌 그룹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 2000년에 보아가 1집 앨범 ‘ID : Peace B’로 데뷔하고, 비(Rain)는 2002년에 ‘나쁜남자’와 ‘안녕이란 말 대신’을 연속으로 히트시키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2003년에

25) 이영미(2011),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 두리미디어, p194.

26) 김영주(2006), “청년 대중음악문화 형성의 배경”, 한국학술정보, p57. 재인용.

는 세븐이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나와 ‘와쥬’를 부르며 댄스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댄스음악계는 3대 대형기획사가 주도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보아를 배출한 SM 엔터테인먼트와 비를 데뷔시킨 JYP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세븐을 등장시킨 YG엔터테인먼트가 주요 3대 기획사이다. 2000년대 이후에 대형 기획사의 탄생으로 인해 댄스 그룹이 대거 등장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대체로 솔로 가수보다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댄스 음악이 대중음악계를 장악하면서 대중음악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현대 대중음악은 트로트, 발라드, 댄스음악이라는 세 집합적 갈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댄스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2010년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선명하게 각인된 열셋말은 ‘K-POP’과 ‘복고’열풍이었다. K-POP은 핵심적인 음악계의 흐름이 되었다. 원더걸스(Wonder Girls)와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가세한 수많은 아이돌 그룹은 ‘K-POP’과 이음동의어가 됐다. 그리고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에서 끝나지 않고 음악적으로도 인정받을 부분은 받고 있는 추세다. 과거 H.O.T.가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음악적으로는 비판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비약적인 발전이다. 2011년 6월에는 SM타운이 파리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우리나라 댄스음악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진출한 것이다. 파리 공연의 티켓 예매는 예매시작 1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2011년 5월 1일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유럽 팬 300여명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²⁷⁾

아울러 젊은 작곡가 들이 K-POP시장에 많은 곡을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상업적, 음악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곡들을 만들었다. 미국과 영국

27) 김창남(2012), “대중음악의 이해”, 한울, p358.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 스타일을 여러 아이돌 그룹의 음반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됐다. 'K-POP'이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음악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물론 K-POP이 아시아 시장에서처럼 팝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영역을 더 넓힐 것이고 적어도 당분간은 음악적으로 팝 시장의 한부분을 차지할 것을 예상할 수는 있다.

'복고'라는 키워드는 흥미롭게도 'K-POP'의 반대급부에서 형성된 흐름이다. '복고'는 K-POP에 가려 소외되어 있던 소비자와 시청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상이었다. MBC프로그램 놀러와를 통해 기대이상의 화제를 모은 세시봉 열풍이 대표적이다. 경연대회 형식의 '나는 가수다'와 '불후의 명곡'은 전적으로 옛명곡들의 매력에 기댔고, 그것을 통해 중장년층을 TV앞으로 모이게 했다. 아이들의 득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어진 복고 열풍이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저 추억 마케팅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복고 열풍에 힘입어 중견 가수들의 분발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가수들마저 프로그램에 나와 그저 남의 노래들이나 편곡하고 부르는 수준이었다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음악의 창조가 아쉬운 대목이다.

2011년을 대표할 만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화제성에 비해 가요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오히려 가장 신선하고 활발하게 음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돌시장이다. 그리고 아이돌 시장과 함께 가장 창조적인 기운이 넘치는 곳은 인디진영이다. 하지만 둘사이의 간격은 너무 크다. 그래서 한류와 인디진영의 약진속에서도 2000년대부터 시작된 중간층의 부재는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²⁸⁾

지금 미국에서는 싸이라는 국내 가수의 노래 “강남 스타일”이 돌풍이 일

28) 김학선(2012), 전계서, p392.

고 있으며, 싸이는 NBC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에 출연했다. 미국 톱스타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까지 자주 등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케이블 tvN이 라이선스를 통해 'SNL 코리아'로 방송 중인 인기 프로그램 으로 이날 메인 호스트는 영화배우 세스 맥팔레인, 가수 프랭크 오션이었지만 싸이는 '깜짝 출연'으로 잠깐 등장한 분량만으로도 대단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가장 '핫'한 스타임을 입증했다. '강남스타일'은 미국 아이튠즈 '탑송즈'(Top songs) 차트에서 1위에 올라 한국 가요사의 새 역사를 썼다. 한국 가수의 노래가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국내 가수 중 처음인 데다 아시아 뮤지션 가운데서도 처음이다. 캐나다, 덴마크, 체코, 파라과이, 페루 등 18개국 차트에서도 1위를 달리며 '월드 넘버원' 히트송 자리에 올랐다.²⁹⁾ 이렇듯 대중음악은 국내와 해외의 뜨거운 관심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29) 스포츠 서울 2012.09.16 “싸이에게 벌어진 비현실적인 일 3가지”.

3. 국내 실용음악학과 현황

가. 4년제 실용음악학과

몇 년 전부터 학부나 계열로 여러 학과를 묶는 것이 보편화되어, 학과제에서 학부의 전공제로, 또는 계열별 학부제로 학교의 편제가 바뀌면서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학과의 명칭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학부전체가 새로 신설되는 경우와 대개는 예체능계 학부 속에 실용음악 전공만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학부제를 유지하면서 학부의 편성을 바꾼 대학도 있다. 2000년에 방송공연학부 등으로 전복 임실에서 개교한 예원예술대학교는 2005년부터 방송공연학부 내에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였다. 지금은 실용음악전공, 뮤지컬 전공, 음악전공, 연극영화·코미디 전공의 세부전공이 있는 공연·음악학부로 학부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기존에 있던 피아노전공을 확대하여 실용음악전공에 상대, 되는 개념으로 음악전공을 만들었다.

서울예술대학이나 동덕여자대학교 그리고 호원대학교처럼 처음부터 실용음악전공자들로 교·강사진을 구성하고 실용음악과를 출범시킨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클래식 전공 교수들이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완전하게 실용음악과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클래식 음악과 안에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두고 부분적으로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 동아대학교는 예술대학 음악과 작곡전공 안에 세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정원10명)으로 시작하여, 예체능계열 음악학과(정원40명)로 바뀐 2009년에는 내부에서 성악(정원20명)전공과 실용음악(정원20명)전공을 두고 있다. 관동대학교는 예술디자인 대학음악과 안에 관·현·타악기 전공,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이 있었으나 2006년에 관·현·타악기전공과 피아노전공으로 줄이고

실용음악전공을 새로 개설하였다. 지금은 음악과의 명칭이 음악학부로 바뀌었지만, 교과과정 등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대신대학교처럼 교회음악과 내부에 실용음악 전공을 개설한 대학도 있다. 2004년, 명신대학교는 피아노학과(2000년)로 발족하여 2001년에 개칭한 음악학과에 실용음악전공과 함께 뮤지컬전공을 추가하였다. 한세대학교는 2006년 음악학부내부의 기존 작곡 전공을 작·편곡전공으로 변경하여 실용음악 교육으로 방향설정을 했다.

음악학과에서 Jazz화성법과 Pop History 등 실용음악과목을 교육해 오던 동의대학교는 2009년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에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였다. 음악과내에 순수 음악전공과 실용음악전공을 함께 개설한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지원현황에 따라 전공별로 필요인원을 선발하고 있어서 전공별 인원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중앙대학교는 국악대학에 연희예술학부와 음악예술학부로 나누었고, 음악예술학부는 국악관현악과와 창작음악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창작음악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실용음악가, 지휘자, 음악제작자, 학예사, 공연기획자, 홍보영상 제작자, 예술행정가로 되어 있는데, 중앙대학교는 국악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퓨전음악의 성격으로 실용음악을 이해하고 있다.³⁰⁾ 국내 실용음악과 4년제 대학 현황은 <표Ⅱ-1>과 같다.

<표Ⅱ-1> 국내 실용음악과 4년제 대학 현황³¹⁾

번호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명	정원	개설연도	비고
1	서울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전자디지털음악과	20	2000	
2	서울	그리스도대학교	음악학부	기독교	6	2013	

30) 이정선(2010), 전계서.

31) <표Ⅱ-1>은 4년제 대학 실용음악과 현황은 신계열(2011)연구를 인용하였으며, 2012, 2013년에 신설된 학과는 추가하였다.

번호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명	정원	개설연도	비고
				실용음악전공			
3	서울	대불대학교	예·체능	실용음악과	97	2002	
4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40	1998	
5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현대 실용음악학과	20	2011	
6	서울	호원대학교	방송예술계열	실용음악학부	93	2005	본교: 전북군 산
7	안산	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30	2011	
8	군포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작편곡전공	6	2006	
9	수원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포스트모던 음악과	40	2000	
10	용인	칼빈대학교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10	2009	
11	안성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전공)	10	2002	
12	천안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생활음악과	40	2001	
13	천안	백석대학교	기독교 문화예술학부	기독교 실용음악과	100	2001	
14	천안	백석대학교	기독교 문화예술학부	공연예술 (성악·뮤지컬/ 실용작곡)	45	2003	
15	천안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디지털음악학과	30	2003	
16	천안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30	2002	
17	천안	나사렛대학교	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20	2010	
18	천안	선교청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실용음악학전공	20	2008	
19	평택	평택대학교	예능대학	실용음악학전공	30	2005	
20	강원 도 강릉	관동대학교*	스포츠예술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50	2006	
21	충남 홍성	청운대학교	예술대학	방송음악과	50	1998	
22	충남 금산	중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실용음악학과	45	2002	
23	대전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재즈학부	35	2005	
24	대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 예술대학	뮤직프로덕션 과	30	2003	

번호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명	정원	개설연도	비고
25	대구	대구예술대학교	음악계열	실용음악전공	40	1997	
26	대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음악대학	실용음악작곡	9	2003	
27	경북 경산	대신대학교*	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70	2003	
28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실용음악학과	21	2007	
29	전남 무안	초당대학교*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35	2000	
30	광주	광주대학교*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보컬전공)	43	2007	
31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실용음악전공	50	2007	
32	부산	동아대학교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40	2005	
33	부산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70	2000	
34	부산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회음악과	40	2006	
35	경북 김천	김천대학교*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30	1997	
36	전북 임실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69	2004	
37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55	2004	

32)

4년제 실용음악학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은 6개, 경기 6개, 충남 10개, 강원 1개, 경상도 3개, 부산 3개 전남 5개, 전북 1개, 경북 2개로 나타났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Ⅱ-2>와 같다.

32) 표안에 *는 음악학과 안에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된 경우이다.

<표Ⅱ-2> 실용음악학과 4년제 지역 현황

서울	경기	충남	강원	경상도	부산	전남	전북	경북
6	6	10	1	3	3	5	1	2

<표Ⅱ-2>를 보면 충남지역에 4년제 실용음악학과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2년제와 3년제 실용음악학과 대학 현황

1994년, 수원여자전문대학(수원여자대학) 생활음악과의 심상숙 교수는 평소에 관심이 많던 대중음악에 관한 교육을 시도하면서 대중음악전공을 개설하였고, 1995년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신중현에게 이론과목의 수업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생활음악과의 클래식 음악 전공교수들 틈에서 대중음악을 가르치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신중현은 새학기가 지난뒤에 강의를 그만 두었고 당시에 생활음악과에 출강하던 재즈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이 후임으로 전공주임이 되었다. 1997년에 생활음악과의 대중음악전공과 클래식음악전공이 각각 예술디자인학부 소속 대중음악과와 아동교육학부 소속 음악과로 분리되면서 수원여대는 신중현을 다시 초빙하여 학과장을 맡게하고 본격적으로 대중음악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전공인 대중음악과와 음악과가 지금은 수원여대 예술학부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대중음악과가 더 이상 음악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될수 있는 독자적인 학과로서 자리를 잡았음을 뜻한다. 1994년에, 클래식음악 전공자로 교수진이 구성되어있던 제주한라대학(전, 한라전문대학) 생활음악과는 건반악기, 관현악, 타악기, 성악, 작곡, 지휘, 실용음악, 국악, 클래식 기타, 음악치료, 예술경영에 이르는 다양한 학과내 세부전공을 두고, 한 학과에서 클래식음악과 함께 실용음악을 교육하기 시

작하였고, 역시 같은 해에 구미1대학(전, 구미전문대학) 생활음악과에도 대중 음악 전공이 생겨서 클래식전공과 함께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2년제 대학에서의 실용음악교육의 확산이 시작 되었다.³³⁾ 2012년엔 장안대의 실용음악과가 신설되었으며 2013년에 강동대와 경인여대에서 신설될 예정인데 강동대는 전공분야를 보컬, 기타, 작곡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뽑고 경인여대는 36명을 오로지 보컬만 모집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총 44개의 실용음악 관련학과 중에서 서울예술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서울대학 여주대학 4개의 학교는 3년제 학과이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2년제 학과이다. 특히 동아방송예술대학과 서울예술대학은 학교내에 4년제 학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3년과정을 이수하고 1년을 더 다니게 되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받아 대학원 등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2,3년제 대학중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신홍대학, 창신대학 등 4개 대학이 CCM이나 교회실용음악, 기독교 실용음악이라는 과명으로 운영되어 종교적인 대중음악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8개의 학교(성덕대학, 서라벌대학, 창신대학, 동부산대학, 서해대학, 전남과학대학,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는 독립된 하나의 과가 아닌 음악과 안에 실용음악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영은 수도권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³⁴⁾ 실용음악학과는 매해 많이 개설 되고 있지만 현재 추세는 2년제의 전공심화과정이 생겨나 4년제 학사학위를 받거나 3년제 과정 또는 사회교육원에서도 많은 실용음악과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실용음악과 2(3)년제 대학의 현황은 <표Ⅱ-3>과 같다.

33) 이정선(2010), 전게서.

34) 신계열 (2011), “학제에 따른 실용음악학과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뉴미디어 음악학전공 석사논문.

<표Ⅱ-3> 국내 실용음악과 2(3)년제 대학 현황³⁵⁾

번호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명	정원	개설연도	비고
1	서울	국제예술대학	음악학부	실용CCM전공	94	2008	
2	서울	백석예술대학	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130	2008	
3	서울	백석예술대학	음악학부	교회실용음악 (CCM)전공	73	2008	
4	서울	한양여자대학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80	2004	
5	서울	명지전문대학	예술체육학부	실용음악과	70	2000	
6	인천	경인여대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36	2013	보컬, 댄스보컬
7	인천	재능대학	예체능계열	재즈음악과	50	2004	
8	성남	동서울대학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25	2009	
9	수원	수원여자대학	예술학부	대중음악과	40	1994	
10	화성	수원과학대학	음악계열	실용음악/ 뮤지컬 전공	40/ 20	2006	
11	화성	장안대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60	2012	
12	이천	강동대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30	2013	보컬, 기타작곡
13	안산	서울예술대학	예능계열	실용음악과	80(58)	1988	3년제
14	여주	여주대학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120	1999	3년제
15	안성	동아방송 예술대학	예체능계열	영상음악계열	75	1998	3년제
16	의정부	신흥대학	예체능계열	기독교 실용음악과	27	2004	
17	의정부	경민대학	예술체육계열	실용음악과	43	2011	
18	김포	김포대학	생활예술학부	생활음악과	43	2011	
19	남양주	경북대학	예능계열	실용음악과	69	1995	
20	평택	국제대학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	45	1998	
21	평택	국립재활 복지대학	예체능계열	멀티미디어 음악과	23	2002	
22	천안	백석문화대학	예체능계열	실용음악학부	150	2004	

35) <표Ⅱ-3> 신계열(2011) 재인용 하였으며 2012, 2013년에 신설된 학과는 추가 하였다.

번호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명	정원	개설연도	비고
23	대전	우송정보대학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60	2001	
24	충북청원	충청대학	방송계열	실용음악과	40	2007	
25	충북청원	주성대학	문화예술학부	실용음악과	30	2000	
26	공주	공주영상대학	예능계열	실용음악과	40	1999	
27	대구	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학부 생활음악전공	50	1999	
28	경북영천	성덕대학*	음악계열	실용음악과	40	1999	
29	경북경주	서라벌대학*	웰빙 복지학부	실용음악과	40	2005	
30	경북 경산	대경대학	아트문화클 러스터학과	실용음악과	45	2010	2013년 K-POP 전공 신설됨
31	경남창원	창신대학*	예체능계열	음악과CCM 실용음악전공	주6 0야 20	2000	
32	부산	부산예술대학	예능계열	실용음악과	160	1995	
33	부산	동부산대학*	디자인 아트계열	음악과 실용음악전공	40	2006	
34	부산	동주대학	디자인 미디어학부	실용음악과	90	2005	2007년 CCM 전공개설
35	전북전주	전주비전대학	사회실무 계열	국제문화과	20	2008	
36	전북완주	백제예술대학	예능계열	실용음악과	240	2000	
37	전북군산	서해대학*	예능계열	음악과(실용 음악전공)	주3 0야 20	2010	
38	전북익산	원광보건대학	실용예술 계열	실용음악과	26	2010	
39	전남나주	고구려대학	공연예술 치료학부	실용음악	40	2007	
40	전남곡성	전남과학대학*	예능계열	음악과	35	2004	

번호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명	정원	개설연도	비고
				(실용음악전공)			
41	전남강진	성화대학	문화예술	실용음악과	30	2001	
42	전남담양	전남도립대학	문화예술 학부	실용음악과	50	2004	
43	제주	제주한라대학*	예체능계열	음악과 실용음악전공	40	2007	
44	제주	제주관광대학*	예능계열	음악예술과 실용음악전공	40	1996	

*표시는 음악학부 안에 실용음악학과가 있는 경우이다.

2, 3년제 실용음악과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 5개, 경기 16개, 충남3개, 경상도 5개, 부산 3개, 전남 4개, 전북 5개, 충북 2개, 제주 2개로 나타났으며 <표Ⅱ-4>와 같다.

<표Ⅱ-4> 국내 실용음악과 2(3)년제 대학 지역 현황

서울	경기	충남	경상도	부산	전남	전북	충북	제주
5	16	3	5	3	4	5	2	2

<표Ⅱ-4>와 같이 경기지역에 2(3)년제 대학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미국 실용음악학과 현황

국내의 실용음악학과는 전공이 상이하여도 같은 교과목을 배우지만 미국은 전공에 따라 교과목이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으므로, 국내 실용음악학과를 기준으로 하여 보컬, 악기, 미디어작곡, 레코딩믹싱 전공이 개설된 학과를 포함하였다. 미국 실용음악학과 현황은 <표Ⅱ-5>와 같다.

<표Ⅱ-5> 미국 실용음악학과 현황

번호	학교명	학부	학과명
1	NEW YORK UNIVERSITY ³⁶⁾	Jazz Studies	Instrumental Music
			Composition
2	University of the Arts ³⁷⁾	School of Music	Composition
			Vocal Performance
			Instrumental Performance
			Music Business, Entrepreneurship & Technology
3	Univerisity of North Texas ³⁸⁾	Jazz Studies	Instrumental
			vocal arranging
4	Juilliard ³⁹⁾	Jazz	Bass
			Drums
			Guitar
			Piano
			Saxophone
			Trombone
5	WILLIAM PATERSON UNIVERSITY ⁴⁰⁾	Jazz Studies	Music Jazz Mgt
			Performance
			Music Jazz sound
			Engineering
			Music Jazz Drum

번호	학교명	학부	학과명
	WILLIAM PATERSON UNIVERSITY	Jazz Studies	Music Jazz Keyboard Music Jazz Vocal mallet, guitar
6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⁴¹⁾	Jazz Studies	Vocal Instrumental Keyboard
7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⁴²⁾	Jazz Studies	Keyboard Guitar Vocal Drum
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⁴³⁾	Jazz Studies	Guitar Drum Keyboard Vocal
9	FULL SAIL UNIVERSITY ⁴⁴⁾	Music	music producers music business
10	UNIVERSITY OF MIAMI ⁴⁵⁾	Jazz Studies	Instrumental Keyboard Vocal
11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 ⁴⁶⁾	Popular Music	Guitar Drum Keyboard Vocal
12	BERKLEE COLLEGE of MUSIC ⁴⁷⁾	Music	Jazz Composition
13	The NEW SCHOOL ⁴⁸⁾	Jazz	Vocal Instrumental
14	The City college of New york ⁴⁹⁾	Music	Instrumental Keyboard Vocal
15	FIVE TOWNS COLLEGE ⁵⁰⁾	Jazz & COMMERCIAL MUSIC	Keyboard Audio recording music business producers of video music.
16	Purchase COLLEGE ⁵¹⁾	Jazz Studies	Instrumental
17	Manhattan School of Music ⁵²⁾	Jazz Arts	Jazz Composition
18	Calstate LA ⁵³⁾	Jazz Studies	Keyboard Vocal

번호	학교명	학부	학과명
19	UCLA extension ⁵⁴⁾	Music Industry	Composition
			Composition
			Instrumental
20	MUSICIANS INSTITUTE COLLEGE OF CONTEMPORARY MUSIC ⁵⁵⁾	Music	Bass
			Drum
			Guitar
			Keyboard
			Vocal
			Audio Engineering
21	LAMA college for Music Professionals ⁵⁶⁾	Music	Guitar
			Drum
			Bass
			Vocal
			Music Producer
22	California COLLEGE OF MUSIC ⁵⁷⁾	Music	Vocal
			Bass
			Drum
			Guitar
			Piano
23	mcnally smith COLLEGE OF MUSIC ⁵⁸⁾	Music	Bass
			Drum
			Guitar
			Keyboard
			Percussion
			Strings
24	Columbia COLLEGE CHICAGO ⁵⁹⁾	Jazz	Bass
			Drum
			Guitar
			Keyboard

36) www.nyu.edu

37) www.uarts.edu

38) www.unt.edu

39) www.juilliard.edu

40) www.wpunj.edu

41) www.csnu.edu

42) www.csulb.edu

43) www.usc.edu

44) www.fullsail.edu

45) www.miami.edu

46) www.mtsu.edu

47) www.berklee.edu

미국의 실용음악과 현황을 알아본 결과 University 11개 College가 12개로 나타났다. 학부가 Jazz인 학교는 Jazz에 집중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으며, Music인 학부는 대중음악과 Jazz 과목이 같이 개설되어 있었다.

48) www.newschool.edu/jazz

49) www.ccny.cuny.edu

50) www.ftc.edu

51) www.purchase.edu

52) www.msmnyc.edu

53) www.calstatela.edu

54) www.uclaextension.edu

55) www.mi.edu

56) www.lamusicacademy.edu

57) www.ccmcollege.com

58) www.mcnallysmith.edu

59) www.colum.edu

Ⅲ.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1. 국내대학 실용음악 커리큘럼

4년제 실용음악학과는 36개이고 예술대학학부, 음악학부, 예술디자인 학부 등에 포함되어 개설이 되어있으며 커리큘럼이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구성 되어 있다. 2년제 실용음악학과는 국내에 44개이고 생활음악과, 재즈음악과, 멀티미디어 음악과, 영상음악계열, 기독교 실용음악과로 개설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개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4년제 청운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김천대학교, 2년제 부산예술대학, 공주영상대학, 경북대학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가. 4년제 실용음악학과

청운대학교의 실용음악학과는 개인 연습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전용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LIVE 레코딩, 녹음 스튜디오에서 더빙과 마스터링을 할 수 있다. 컴퓨터 음악실의 모든 컴퓨터에 구비된 DVD-RW를 이용하여 5.1 채널 DVD를 제작하는 등 실기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연주회와 음악회 등을 통해 무대에서의 경험을 쌓게 하고, 방송 영화 광고음악이나 뮤직비즈니스, 무대 및 방송음악 프로그램 연출 등의 수업을 통해 방송과 관련된 실무 분야에서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커리큘럼을 보면 전교과목이 전공필수로 개설되어 있다.

1~4학기에는 6개의 전공관련 교과목을 배우지만, 5~7학기에는 10개의

교과목으로 늘어나고, 8학기에는 졸업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앙상블 수업 외에도 부전공실기(보컬/재즈피아노), Sight Reading & Scale, 뮤지컬 및 연기실습, 타악기와 리듬 등으로 실기 교과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 60)

동덕여대의 실용음악학과의 합주실기 수업은 특정장르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데, 재즈와 대중음악 뿐만이 아닌 Modern Rock, Bebob, Gospel, Latin, Acappella, Modern Jazz I, Fusion, AfroCuban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클래식 피아노와 기타, 영상실기는 광고음악과 영상음악으로, 역사에 관한 연구로는 월드뮤직, 록음악, 포크음악으로 개설되어 있음을 알수가 있다.61)

김천대학교의 실용음악학과는 1996년에 생활음악과로 신설되어 현재는 음악학과 안에 실용음악 전공62)클래식 전공63), CCM 전공64)으로 분류되어 있다. 음악감상, 서양음악사는 학과기초교양으로 개설되어있고, 전공실기와 연주 외에는 전공선택으로 전부 개설되어 있었다. 65)

나. 2년제 실용음악학과

부산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학과는 18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이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앙상블이 록밴드 앙상블, 재즈밴드앙상블, 보컬 앙상블로 나누어지고 부전공 실습을 4학기에 나누어 학습한다. 학점과 관계없이 학생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학교에 관련된 프로젝트 강좌를 통해 영상, 연극, 무용,

60) www.chungwoon.ac.kr

61) www.dongduk.ac.kr

62) 보컬, 재즈피아노, 기타, 드럼, 미디작곡, 송라이팅, 뮤지컬 전공이 있다.

63) 피아노, 성악, 오르간, 작곡, 지휘(합창/오케스트라), 관현악, 반주전공이 있다.

64) 찬양사역 전공이 있다.

65) www.gincheon.ac.kr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에 대한 실제 작품제작에 참여 함으로서 타 매체에 대한 이해력을 높임과 동시에 실용음악, 음향 콘텐츠 제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계명대학교의 생활음악학과는 전문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레슨실, 뮤지컬 연습실, 개인연습실, 합주실, 그룹사운드실, 디지털 피아노실, 대강의실, 컴퓨터 음악실이 최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위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연주와 비평 교과목이 4학기 내내 개설되어 있는데 학생이 연주를 하고 그에 관한 비평을 교수와 나머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수업을 통해 연주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대학교의 실용음악과는 공연장이 많은 학교이다. 500석 규모의 콘서트홀, 200석 규모의 공연장, 140석 규모의 소 공연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내에서 각종 가요제(대학 가요제, 유재하 가요제, 뮤지컬 공연의 오디션)참가를 유도하여 참가토록 하며, 현장에서 활동중인 영화음악 작곡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커리큘럼중에 현장실습이 개설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공연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학교별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비교.

동일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과목도 있지만, 비슷한 명칭을 가진 커리큘럼은 해당 학과의 교과 설명을 참고로 하여 분류하였다. 4년제 학교별 커리큘럼 비교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4년제 학교별 커리큘럼 비교

청운 대학교	학기	동덕여자 대학교	학기	김천대학교	학기
시창·청음 I, II(전필)	1,2	시창·청음 I, II (전필)	1,2	시창·청음 I, II (전필)	1,2
		고급·청음 I, II 전공실기	3,4		
부전공실기 I, II (전필)	1,2	I, II, III, IV, V, VI (전필)	3,4,5,6, 7,8	전공이론 및 실기 I, II, III, IV, V, VI VII, VIII(전필)	1,2,3,4, 5,6,7,8
(보컬/재즈피아노) 실용음악악전 I, II (전필)	1,2			음악기초이론 I, II (전필)	1,2
컴퓨터음악 I, II (전필)	3,4	리듬편곡	4	미디어편곡 I, II, III, IV(전선)	3,4,5,6
음악교육학(전필)	6			음악교육론 I, II (전선)	5,6
실용음악사 I, II(전필)	5,6	재즈음악사(전필)	6		
		서양음악사(전필)	5	서양음악사 I, II (기초교양)	3,4
연주 I, II, III, IV(전필)	1,2 3,4	연주실기 I, II (전필)	1,2	연주 I, II, III, IV (전필)	3,4,5,6
양상블 I, II, III, IV, V, VI (전필)	3,4,5,6 7,8	합주실기 I, II (전필)	1,2	퓨전양상블 I, II (전선)	5,6
보컬양상블 I, II (전필)	5,6				
		클래스피아노 (전선)		클래스피아노 I, II (전필)	3,4
전통화성 I, II(전필)	1,2	재즈화성학 I, II (전필)		재즈화성학 I, II (전선)	3,4
		고급화성학(전필)	3	화성학 I, II(전선)	1,2
		선법화성학(전필)	4		
뮤지컬 및 연기실습 I, II(전필)	5,6	뮤지컬 워크샵(전선)		뮤지컬 연기 I, II(전선)	7
영상음악 I, II(전필)	7,8	영상음악실기		영상음악 I, II	1,2

청운 대학교	학기	동덕여자 대학교	학기	김천대학교	학기
		(전선)		(전선)	
디지털레코딩 I,II (전필)	5,6	레코딩실습(전선)		사운드엔지니어링 I,II(전선)	7,8
레코딩세션(전필)	7				
		음악감상론 I,II (전필)	1,2	음악감상 I,II (기초교양)	1,2
		즉흥연주기법 (전선)			
		보컬즉흥연주 (전선)			
국악의 이해(전필)	6	국악가락실기 (전선)		국악개론 I,II (전선)	7,8
실용음악 편곡기법(전필)	7	가요편곡법(전필)	5		
관현악 작편곡법(전필)	7	현악편곡법(전선)			
지휘법(전필)	7			지휘법 I,II(전선)	7,8

실용음악악전, 음악기초이론은 음악의 기초이론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이고, 부전공실기는 보컬과 재즈피아노로 나누어 놓았을뿐 배우는 내용은 전공실기와 같다. 타악기와 리듬, 리듬과 양식은 리듬에 관련된 학습을 한다. 전통화성, 재즈화성, 고급화성은 화성학에 대하여 학습을 하며, 앙상블과 합주실기 또한 밴드로 구성되어 실기위주의 수업을 하는 커리큘럼이다. 실용음악 편곡기법, 관현악 편곡기법, 가요편곡법, 리듬편곡법은 효과적인 편곡 형식, 정확한 편곡기법의 구사와 함께 창의적인 편곡을 요구하는 커리큘럼이다.

4년제 학교별 특정 커리큘럼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4년제 학교별 특정 커리큘럼

청운 대학교	학기	동덕여자 대학교	학기	김천대학교	학기
지휘법(전필)	7	클래스기타(전선)		콘서트와이어 I, II, III, IV, V, VI(전선)	1,2,3,4 ,5,6
Sight Reading & Scale I, II(전필)	1,2	사보법(전선)		예술경영의 실제(전선)	7
대위법 I, II(전필)	5,6	작품분석 및 무보법(전선)		음악미학(전선)	8
포트폴리오 제작(전필)	8	가요작법(전선)			
타악기와 리듬 I, II(전필)	7,8	광고음악실기 (전선)			
뮤직 비즈니스 I, II(전필)	7,8	월드뮤직연구 (전선)			
졸업연주(전필)	8	포크음악연구 (전선)			
		록음악연구(전선)			
		관현악법(전선)			
		리하모니제이션 (전선)			
		리듬과양식(전필)			
		퍼포먼스 워크샵 I, II	5,6		

특정 교과목을 살펴보면 동덕여자대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기 구분이 없는 과목은 전공 선택과목으로써 매학기 개설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 인원수에 따라 개설 또는 폐강 되기도 하므로 학기를 넣지 않았다.

2년제 학교별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비교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2년제 학교별 커리큘럼 비교

경북 대학교	학 기	부산예술대학교	학 기	계명대학교	학 기
전공실기 I, II, III, IV(전필)	1,2,3,4	전공실기 I, II, III, IV(전필)	1,2,3,4	전공실기 I, II, III, IV(전필)	1,2,3,4
		부전공실기 I, II, III, IV(전선)	1,2,3,4	부전공실기 I, II, III, IV(전필)	1,2,3,4
보컬양상블 I, II, III, IV(전필)	1,2,3,4	록밴드 양상블 I, II(전선)	1,2	양상블 클래스 IV(전필)	4
Ensemble workshop I, II, III, IV(전필)	1,2,3,4	재즈밴드 양상블 I, II(전선)	1,2	합창합주 I, II, III, IV(전필)	1,2,3,4
재즈피아노 클래스(전필)	1,2	클래스 재즈피아노(전선)	3,4	피아노클래스 (전필)	1,2
		한국음악의 이해 I, II(전선)	1,2	한국음악의 이론과 실기(전필)	3
		실용음악의 이론 I, II(전선)	1,2	음악기초의 이해(전필)	1
공연실습 I, II, III, IV(전필)	1,2,3,4	라이브 워크샵 I, II, III, IV(전선)	1,2,3,4	무대공연실기 I, II(전필)	1,2
		싱어송 라이터(전선)	1	보컬 마스터 I, II(전필)	1,2
MIDI & SOUND I, II(전필)	1,2	컴퓨터 음악 I, II(전선)	3,4	컴퓨터 뮤직 프로덕션(전필)	3
레코딩 프로젝트(전필)	4	졸업음반제작 (전필)	4	졸업연주(전필)	4
시창.청음 I, II, III, IV(전필)	I, II, III, IV	시창(전선)	1	시창. 청음 I, II(전필)	1,2
		청음(전선)	2		
		음악비즈니스 (전선)	1	뮤직비즈니스 메커니즘(전필)	3
		재즈의 이해(전선)	3	재즈음악의 이해와 연주(전필)	3

경북 대학교	학 기	부산예술대학교	학 기	계명대학교	학 기
편곡법 I,II(전선)	3,4	실용음악 편곡법(전선)	3		
재즈피아노테크닉 (전선)	3			베이직키보드 (전필)	3
화성학 I,II(전필)	1,2	재즈화성법 I,II (전필)	1,2	화성학(전필)	2
실용음악사(전필)	2			음악사(전필)	4
영어 I,II(교필)	1,2	생활영어(교선)			
교육학개론(교직)	3	교육학개론(교직)	3	교육학개론(교직)	4
실기교육방법론(교직)	4	실기교육방법론 (교직)	4	실기교육방법론 (교직)	3

MIDI & SOUND, 컴퓨터 음악, 컴퓨터 뮤직프로덕션은 동일한 교과목으로써 컴퓨터음악의 기본이 되는 MIDI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립하고, 엄선된 몇 개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교육을 실시하며, 음향효과와 같은 Sound Engineer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수업이다.

2년제 학교별 특정 커리큘럼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2년제 학교별 특정 커리큘럼

경북 대학교	학 기	부산예술대학교	학 기	계명대학교	학 기
대중예술인의 사회(교필)	1	일본어(교선)	2	리듬실기	1
진로설계(교필)	1	인간과종교(교선)	3	연주와 비평 I, II, III, IV	1,2,3,4
popsong 영어(교선)	3	음악의 이해와 감상(교선)	1	기독교와 문화	2
기초실습(전필)	3	공연 예술의 이해와 감상(교선)	3	실용음악세미나	4
현장실습(전필)	4	졸업음반제작	3	음악사	4

경북 대학교	학 기	부산예술대학교	학 기	계명대학교	학 기
		(전필) 레코딩테크닉	3	전공실무	4
		(전선) 프로젝트 실습(전선)	3		
		전통악기 실습(전선)	2		

경북대학교는 특정과목으로 기초현장실습, 심화현장실습이 개설되어 있는데 가요제나, 공연장을 통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시창청음이 4학기 내내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이 건반이 아니어도 재즈피아노와 재즈피아노 테크닉을 3학기에 걸쳐서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예술대학교는 졸업음반 제작이 개설되어있는데 졸업연주를 한 후 본인이 직접 연주한 곡을 음반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계명대학교는 연주와 비평 교과목이 1, 2, 3, 4 학기동안 배우며, 학생이 연주를 한 후 교수와 학생들이 그에 관한 비평을 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대학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미국 동부지역에 있는 인터넷 검색시 가장 먼저 나오는 유명한 실용음악학과 3곳(버클리 음대, NYU, University of the Arts)을 선정하였다.

가. 미국대학 실용음악학과

1) BERKLEE COLLEGE of MUSIC

버클리 음대는⁶⁶⁾ 음악학부가 크게 3개 학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Professional Education(음악교육학부), Professional Performance(공연학부), Professional Writing and Music Technology Division(작곡과, 음악공학과)으로 되어있다. 각 세부전공마다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 명실 상부한 미국 최고의 실용음악 학교임을 증명하고 있다.⁶⁷⁾ 재즈작곡학부는 음악학부안에 포함이 되어있으며 음악학부는 다음 <표Ⅲ-3>과 같다.

<표Ⅲ-3> 버클리 음악대학 음악학부

학과	학부명	비고
Professional Education (음악교육학과)	Music Business/Management Department (음악사업/ 경영 전공)	음악의 사업적 측면을 배움.
	Music Education Department (음악 교육 전공)	지휘자·교사를 목적으로 함
	Music Therapy (음악치료)	음악 치료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가·비평

66) 본 논문에서는 BERKLEE COLLEGE of MUSIC를 버클리 음대라 칭한다.

67) www.berklee.edu

학과	학부명	비고
		가를 배출해냄
	Professional Music (음악 기획)	공연 기획에 대해 배움.
Professional Performace (공연학과)	Bass (베이스)	
	Brass (브라스)	
	Ear Training Department(청음 전공)	
	앙상블 Department (앙상블 학부)	
	Guitar (기타)	
	piano (피아노)	
	String (현악기)	
	Voice (성악)	
	Woodwinds (목관악기)	
Professional Writing and Music Technology Division (작곡과, 음악공학과)	Composition Department (클래식 작곡)	
	Contemporary Writing and Production Department (현대 작곡과 제작전공)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학부
	Electronic Production and Design Department (전자 제작과 디자인 전공)	미디 작곡과 같은 학부
	Harmony (화성학 학부)	매주 학생들이 멜로디와 화성으로 곡을 만들어 밴드를 통해 발표.
	Film Scoring Department (영화음악학부)	영화의 작곡과 편집을 배움
	Jazz Composition Department (재즈작곡학부)	재즈와 관련있는 음악을 작곡.
	Music Production and Engineering Department (음악 제작 및 엔지니어링)	음악 프로듀서를 생산해냄
	Songwriting Department (작곡)	대중음악 작곡가에 관한 과정을 배움

버클리 음대 음악학부의 커리큘럼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졸업이수 학점이 비슷하지만 커리큘럼 안에 전문학사와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이 같이 시행되어 같은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다양한 앙상블 통하여 각 전공마다 밴드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해 내

는 커리큘럼이 있는 학부가 있다. 타학교는 일년중 날짜를 지정해 놓고 오디션과 공연을 하는데 버클리 음대는 일년내내 앙상블의 리허설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정해 놓았다.

가) 버클리 음대 특징

버클리 음대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화된 컴퓨터 미디시설과 레코딩 관련 음반제작을 할수 있다.

첫째, Berklee Performance Center와 Recital Halls에서 일년 내내 공연할수 있으며, 유명한 앙상블이 버클리 음대 안에 많이 포진해 있고 관련된 음반들을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버클리 음대 재즈작곡학부의 시설은 전문 작곡 스튜디오 안에서 컴퓨터 미디를 통하여 현대음악, 작곡, 영화음악의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은 시설을 이용할 수 가 있는데, 이곳은 매사추세스에 위치해 있으며 12개의 디지털 오디오 MIDI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악관련 기계들은 학생의 노트북과 연결하여 쓸 수 있고 각 책상이 모두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음악에 관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셋째, 버클리 음대의 Recording Studios (녹음 스튜디오)는 음악 제작 및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고, 현재 13개인데 다른 학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학생들과 Recording 전문가와 공동작업을 실시하며 현대음악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기계들을 사용한다.

나) 버클리 음대 재즈 작곡 커리큘럼

재즈 작곡전공은 총 120학점을 수료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첫 시작 4학기 동안에 앙상블에 참여해야 하며, 교양은 4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일반 선택과목은 10학점을 들어야만 한다. 음악 과목 이외에도 사회, 자연과학, 예술의 역사 등 교양으로 다른 학부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NEW YORK UNIVERSITY⁶⁸⁾

NEW YORK UNIVERSITY의 재즈학부는 예술학부안에 재즈학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분화되어 구성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실용음악학부 안에서 보컬, 악기, 미디어작곡, 레코딩 전공 등으로 나뉘어 지지만 NYU는 예술학부 안에 세분화된 학부가 독립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커리큘럼도 모두 상이하여 전문화 되어 있다. 국내의 커리큘럼은 실용음악학부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른 학부에선 배우지 않는데, NYU는 음악이 관련되어진 과목이면 커리큘럼에 대중음악이나 재즈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예술학부는 <표Ⅲ-4>와 같다.

<표Ⅲ-4> NYU 예술대학 학부

번호	학부명	비고
1	Brass Education(금관연구)	
2	Dance in the Professions: ABT Ballet Pedagogy (전문적인 춤: ABT 발레 교육학)	
3	Dance Education(무용 교육)	

68) 본 논문에서는 NEW YORK UNIVERSITY를 약자 NYU로 표기한다.

번호	학부명	비고
4	Drama Therapy (드라마 치료)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배우는 커리큘럼 포함됨
5	Educational Theatre(교육극장)	연극 학부
6	Film Scoring(영화 음악)	
7	Jazz Studies (재즈학부)	
8	Music Business(음악사업)	
9	Music Compostion(음악작곡)	
10	Music Education(음악교육)	
11	Music Minor(음악마이너)	현악기 중심의 학부, 재즈음악 커리큘럼이 포함
12	Music Technology(전자음악)	국내 실용음악과의 레코딩 믹싱과 같은 과목
13	Music Therapy(음악치료)	
14	Music Theatre(음악극)	고전적인 보컬을 위한(뮤지컬) 커리큘럼임
15	Percussion Studies(타악기 연구)	
16	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음악행정교육)	석사과정만 가능 음악관련사업의 리더십을 배움
17	Piano studies(피아노 연구)	
19	String Studies(현악기 연구)	클래식 현악기 학부
20	Vocal Pedagogy(보컬 교육방법)	
21	Vocal Performance: Claasical voice and Opera Studies(보컬 기능: 고전발성 및 오페라 연구)	
22	Woodwind Studies Curriculum Undergraduate (목관악기 연구)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험을 중시하고 음악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매주 학생들은 Blue Note Jazz Club, the

Village Vanguard, Birdland, the Jazz Standard and the Knitting Factory⁶⁹⁾에서 연주를 해야한다. 커리큘럼은 기초 음악 교육과정과 재즈 연구 전문과정을 결합하였으며 다른 학부의 다양한 교양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필수로 듣는 커리큘럼 외에도 자신이 추가하여 다른 음악에 관련된 학부의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다.

가) NYU의 특징

NYU는 공연중심으로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명 아티스트와 만남을 가지는 기회를 갖거나 조언을 들을수 있는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다.

첫째, NYU의 Jazz 앙상블은 학생들과 교수의 교류를 중시여기기 때문에 교수진 또는 유명 재즈아티스트 (Stefon Harris 앙상블, Wayne Krantz 앙상블, Joe Lovano 앙상블등)와 함께 무대에서 앙상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매주 가질 수 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디션을 거친후 선발된다.

둘째, NYU의 Jazz Master class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재즈 아티스트의 강의 또는 단독 인터뷰의 시간을 가지거나 음악 관련 업계에서 성공한 분을 초청하기도 한다. NYU에서 주최하지 않은 경우에 NYU 학생 ID를 가진 경우 저렴하게 낼 수 있다. 재즈의 산업이나 이론 등을 배울 수 있다.

셋째, NYU의 Jazz Interview Series는 Blue Note Jazz club⁷⁰⁾에서 재즈 아티스트들을 지정하여 1:1로 비공식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며 음악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69) Blue Note Jazz Club, the Village Vanguard, Birdland, the Jazz Standard and the Knitting Factory는 뉴욕에서 유명한 재즈클럽이다..

나) NYU의 재즈학부 커리큘럼

재즈학부의 전공별 커리큘럼은 130학점 이상을 수료해야 하고 신학교 프로그램 세미나는 매학기 필수로 들어야 하며, 공연 과목은 매학기 1학점을 더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앙상블은 매학기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0학점을 수료할 경우 다른 선택 과목에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신입생은 영어 작문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양과목은 40학점까지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재즈학부의 커리큘럼의 학점구성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NYU 학점 구성표

커리큘럼 과정	학점
핵심코스	26
기악전공	55
작곡전공	57
교양과정	40

작곡전공일 경우 핵심코스(26)+작곡전공(57)+교양과정(40)=123학점인데 나머지 학점은 학생 본인이 외부공연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기악전공이 아니더라도 Keyboard Harmony & Improvisation(키보드 하모니 & 즉흥)을 이수해서 키보드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한다. NYU는 실기를 중요시하는 학교 답게 재즈즉흥과 재즈 앙상블이 가장 높은 학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The University of the Arts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재즈학부는 공연예술학부 안에 속해 있고, 예술학부만 있는 국내의 한국종합예술학교 같은 성격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학과의 연계성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공연예술학부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공연예술학부

번호	교과목명	비고
1	School of dance(무용학부)	
2	Ira Brind School of Theater Arts (극장예술학부)	무대감독, 뮤지컬연기 노래, 의상디자이너, 세트디자이너등
3	School of Music(음악학부)	재즈 중심
4	Graduate Degree Programs(대학원 학위)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음악 전공은 재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재즈 이외에도 여러 음악을 수용 하고 있는데, JS 바흐, 전자 음악, 록, 뉴 올리언즈 재즈 등을 접할수 있으며 작곡, 교육, 음악 사업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9:1, 대학원 4:1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전임교수이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현지 학생들에게는 인지도가 높다.

가)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특징

The University of the Arts는 앙상블의 개수가 50개이며, 폭넓은 장르와 스타일을 접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첫째,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앙상블은 앙상블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답게 작은 앙상블부터 규모가 큰 앙상블까지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고 특정 아티스트들이 앙상블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음악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오디션 필요없이 학교에서는 최소

한학기에 하나 이상의 앙상블에 배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매년 공연과 콘서트에 반드시 참가해야만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둘째, The University of the Arts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학교에서 공연을 한다. 음악전공자는 출석을 필요로 하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공연에 참가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셋째,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시설은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메리암 극장건물, 시설이 완비된 음악 스튜디오, 연습실, 클래식 피아노 실습실, 디지털 드럼 실험실 및 교실 등이 있다. 학교 MARS (MIDI와 녹음 스튜디오)는 전체 32개이며, 입력 녹음 스튜디오, MIDI, 컴퓨터 실험실, 컴퓨터와 신디사이저 워크 스테이션 실험실과 녹음, 음악 기술 시설 및 오디오를 위한 비디오 더빙과 실험실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습 객실은 음향 피아노, 플라즈마 모니터, LCD 프로젝터 및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타악기와 드럼 세트 스튜디오 스위트 룸은 학생 연습에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와는 다르게 연습실, 음향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전문화된 기자재로 학습할 수 있다.

나)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재즈학부 커리큘럼

작곡전공 커리큘럼은 인기 재즈의 기초와 상업 적이며 현대적인 클래식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은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무용 및 멀티미디어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음악을 글로 이해하며 기술적으로 숙련된 작곡가가 되도록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다.

Small Vocal 앙상블(작은 보컬 앙상블)은 반드시 두 번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Applied Major Instruction-Composition (실용의 중요한 설명-작곡)은 커리큘럼 자체가 I, II, III로 구분하지 않고 과목 코드만으로 분류하여 놓

왔다. Chorus(합창곡)는 반드시 두 번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6학점을 수료해야만 하며, 레벨 800의 MUPF 872 코드의 과목은 제외한다. Class piano (피아노 수업)는 피아노 전공자는 이수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과목에서 대체하여야만 한다.

나. 미국 대학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비교

미국대학은 전공별 커리큘럼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즈 작곡 전공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비슷한 명칭을 가진 커리큘럼은 해당학과의 교과설명을 참고로 하여 분류하였다. 학교별 재즈작곡학부 커리큘럼 비교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학교별 재즈작곡학부 커리큘럼 비교>

버클리 음대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
Basic Keyboard I, II (기초 건반)		Class Jazz Piano I, II (피아노 수업)
Arranging(편곡) I, II	Jazz Arranging & Composition I, II (재즈 편곡과 작곡)	Arranging(편곡)
Survey of Jazz Composition and Arranging (재즈 작곡의 조사와 편곡)	Orchestration (관현악 편곡법)	Orchestration/MIDI Orchestration project (관현악 편곡, 미디 편곡 수행)
Jazz Composition I, II(재즈작곡)		Recording I (레코딩 I)
	Aural Comprehension I, II(청음)	Jazz Ear Training I, II(청음)
	Jazz Theory & Ear Training I, II (재즈 이론 및 청음)	

버클리 음대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
	Music Theory I, II, III, IV (음악이론)	Music Theory (음악이론)
Jazz Counterpoint I, II (재즈 대위법)	Applied Counterpoint (실용 대위법)	
Conducting I, II (지휘법)		Basic Conducting (기본 지휘)
History of Western Music I, II (서부음악의 역사)	Music History I: Medieval & Renaissance (음악 역사 I: 중세 및 르네상스)	Music History I, II (음악 역사)
	Music History II: Baroque & Classical (음악 역사 II: 바로크 및 고전)	Jazz History (재즈 역사)
	Music History III: Nineteenth Century (음악 역사 III: 19세기)	
	Music History IV: Twentieth Century (음악 역사 IV: 20세기)	
Private Ensemble I, II, III, IV (공연앙상블)	Jazz Ensemble (재즈 앙상블)	Small Vocal 앙상블 (작은 보컬 앙상블)

버클리 음대,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Arranging(편곡)은 국내의 컴퓨터 음악과 같은 교과목으로써 재즈음악을 미디로 편곡하는 방식을 배운다. 국내대학과의 차이점으로 미국에서는 재즈를 기반으로 한 Jazz Counterpoint(재즈 대위법), Applied Counterpoint(실용 대위법)로 배우지만 국내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기준으로 한 대위법을 배운다. 역사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미국은

History of Western Music(서부 음악의 역사), Music History I : Medieval & Renaissance (음악 역사 I : 중세 및 르네상스), Music History (음악 역사)로 다양한 역사를 배우지만 국내는 재즈음악 역사에 치우쳐 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국내와는 달리 미국은 각 학교만의 특징적인 커리큘럼이 많이 나타났는데, 음악 커리큘럼 외에도 버클리 음대는 역사에 관한 교과목이 다양히 개설되어 있었고, NYU와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Private Composition (개인구성), Electives Complete 9 credits of free electives.(9학점은 타 학부의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택함)은 개인이 직접 음악 전공이 아닌 타 전공에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미국대학 실용음악학과의 특정 커리큘럼은 <표 III-7-1>과 같다.

<표 III-7-1 학교별 재즈작곡학부 특정 커리큘럼>

버클리 음대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
Chord Scale Voicings for Arranging (편곡을 위한 코드 스케일 보이싱)	Keyboard Harmony & Improvisation I, II, III, IV (키보드 화성학과 즉흥)	First-Year Writing II or Fundamentals of Composition I, II (첫해 쓰기 수업 또는 작곡 필수 수업)
Big Band Arranging/Score Analysis (큰 밴드 편곡/ 작품 분석)	Collegium & Program Seminar (신학교 및 프로그램 세미나)	Humanities Seminar (인문 과목 수업)
Reharmonization Techniques (리하모니제이션의 기술)	Private Composition (개인구성)	Period Interpretation (음악 작품 해석)
Directed Study in Jazz Composition	Form & Analysis (양식 및 분석)	Scientific Inquiry Foundation (과학 연구 해석)

버클리 음대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
(재즈작곡의 지시된 학습)		
Harmony I, II, III, IV (화성학)	Orchestration: Winds/Percussion (타악기 파트 편곡법)	Electives Complete 9 credits of free electives. (9학점은 타 학부의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택함)
Tonal Harmony and Composition I, II (음색 화성법과 작곡)	Jazz Improvisation I, II (재즈즉흥)	Composition: Forms & Concepts I, II (작곡: 형식과 개념)
The Art of Counterpoint (대위법의 기법)	Reference & Research in jazz (재즈 이론에 대한 연급)	Analysis and Composition of Commercial Music (상업음악의 작곡과 분석)
Conducting I, II (지휘법)		Senior Recital (상위 연주회)
Introduction to Music Technology (음악 기술의 도입)		Musicianship I, II (음악적 기교)
Artistry, Creativity, and Inquiry Seminar (예술적 기교, 창조 그리고 토론 연구)		Music Technology Survey(음악기술조사) I, II
Professional Development Seminar (전문적인 발전 연구)		Business of Music or Careers in Music (음악사업 혹은 음악직업)
Writing and Communication (쓰기와 대화)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여러 학문분야의 공동작업)
Literature (문헌)		
Any course in mathematics/physical sciences (수학/ 자연과학)		

버클리 음대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
Any course in history (역사)		
Any course in art history (예술의 역사)		
Any course in social sciences (사회 과학)		

학교의 각각 특정 커리큘럼은 버클리 음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The University of the Arts, NYU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실용음악학과 청운대, 동덕여대, 김천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본 결과 동덕여대가 공통과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미국의 실용음악학과는 The University of the Arts가 국내와 가장 유사하게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동덕여대와 The University of the Arts와 커리큘럼을 비교분석하였다. 동덕여자대학교와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커리큘럼 비교는 <표 III-7-2>와 같다.

<표 III-7-2 동덕여자대학교 ·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커리큘럼 비교 >

동덕여자대학교	The University of the Arts ⁷¹⁾
시창·청음 I, II(전필)	Jazz Ear Training I, II(재즈 청음)
고급·청음 I, II	
전공실기 I, II, III, IV, V, VI(전필)	Applied Major Instruction (실용전공설명 기악, 보컬, 작곡)
리듬편곡	
재즈음악사(전필)	Jazz History (재즈역사)
서양음악사(전필)	Music History I, II(음악역사)
연주실기 I, II (전필)	Senior Recital (상위 연주회)

동덕여자대학교	The University ⁷¹⁾ of the Arts
합주실기 I, II (전필)	Small Vocal Ensemble(작은 보컬 Ensemble)
클래스피아노(전선)	Class piano I, II (피아노 수업)
	Class Jazz piano I, II (재즈 피아노 수업)
재즈화성학 I, II(전필)	Jazz Theory I, II(재즈이론)
고급화성학(전필)	
선법화성학(전필)	
뮤지컬 워크샵(전선)	
영상음악실기(전선)	
레코딩실습(전선)	Recording I (레코딩 I)
음악감상론 I, II(전필)	
즉흥연주기법(전선)	Musicianship I, II-작곡 (음악적 기교)
	Advanced Piano and Accompanying
보컬즉흥연주(전선)	(고급과정 피아노와 동반)-보컬
국악가락실기(전선)	
가요편곡법(전필)	Arranging (편곡)
	Orchestration/MIDI Orchestration
현악편곡법(전선)	(관현악 편곡, 미디 편곡)
클래스기타(전선)	
사보법(전선)	
작품분석 및 무보법(전선)	
가요작법(전선)	
광고음악실기(전선)	
	Analysis and Composition of
월드뮤직연구(전선)	Commercial Music-작곡
	(상업음악의 작곡과 분석)
포크음악연구(전선)	
록음악연구(전선)	
관현악법(전선)	
리하모니제이션(전선)	
리듬과양식(전필)	
퍼포먼스 워크샵 I, II	
	Composition: Forms & Concepts-작곡
	(작곡: 형식과 개념)
	Arranging project-작곡 (편곡 과제)
	Basic Conducting-작곡 (기본 지휘)
	Music Theory I, II-작곡 (음악이론)
	Music Technology Survey I, II-작곡
	(음악기술조사)

동덕여자대학교	The University ⁷¹⁾ of the Arts
	Digital Music Production (디지털 음악 제작) Business of Music or Careers in Music (음악사업 혹은 음악직업)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여러 학문분야의 공동작업)
	Transcript and Analysis (편곡과 분석)-기악 Styles and Diction (스타일과 발음)-보컬

동덕여자대학교와 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공통 커리큘럼은 시창·청음, 전공실기, 재즈음악사, 클래식 피아노가 나타났고 특정 커리큘럼은 동덕여자대학교 화성학, 영상음악실기, 즉흥연주 기법 등이 나타났고, The University of the Arts는 기본지휘, 음악사업, 편곡과 분석, 스타일과 발음으로 나타났다.

71) 해당 전공만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은 -전공, -기악, -보컬로 표시를 해놓았다.

3. 국내대학 실용음악 커리큘럼 인식 조사

가. 연구대상

서울·경기권의 2,3,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표본의 수는 608명으로 재학생 555명 졸업생 53명에 대해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 실용음악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는 박선영(2006)의 실용음악 교과과정의 실태조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문하였다. 검사문항은 문항은 커리큘럼, 전공수업(이론), 전공실기(합주)에 대한 문항으로 19문항과 서술형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8> 실용음악 커리큘럼 설문지의 문항

문항	문항번호(재학생 555명, 졸업생 53명)	문항 수	서술형문항
커리큘럼에 관한 문항	1, 2, 3, 4, 5, 6, 7, 8	8	1
전공수업(이론)에 관한 문항	1, 2, 3, 4, 5, 6, 7,	7	1
전공실기(합주,양상블)에 관한 문항	1, 2, 3, 4	4	1

평가 방법으로는 5단계 측정방법으로 3문항을 제외한 15개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로 나누어 설문 하였다. 커리큘럼, 전공수업(이론), 전공실기(합주)에 대한 문항으로 객관식 19문항과 서술형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커리큘럼에 관한 문항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에 관한 질문이 7개, 서술형 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1번 문항으로 ‘실용음악학과 전공수업과 전공실기의 비율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는 <표Ⅲ-9>와 같다.

<표Ⅲ-9> 커리큘럼 이론, 실기 비율의 적절성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실용음악학과 이론과 실기의 비율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6 (6.5)	6 (11.3)
	그렇지 않다	116 (20.9)	35 (66.0)
	보통이다	277 (49.9)	10 (18.9)
	그렇다	110 (19.8)	2 (3.8)
	매우 그렇다	16 (2.9)	0

<표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과 실기의 비율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49.9%로 나타나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합이 26%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21%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66%, ‘보통이다’ 18.9%, ‘전혀 그렇지 않다’ 11.3%. 그렇다 3.8%의 결과가 나왔는데 졸업생과 재학생의 응답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학생은 이론, 실기비율의 적절성에 대해 ‘보통이다’가 많은 반면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실용음악과의 커리큘럼은 점차 다양한 과목으로 편성이 되고 실기과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커리큘럼의 실태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용음악 커리큘럼은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과정입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0>과 같다.

<표Ⅲ-10>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과정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퍼센트)	졸업생퍼센트
실용음악 커리큘럼은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과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5 (8.1)	3 (5.7)
	그렇지 않다	136 (24.5)	24 (45.3)
	보통이다	247 (44.5)	26 (49.0)
	그렇다	111 (20)	0
	매우 그렇다	16 (2.9)	0

<표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과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살펴보면 재학생은 ‘보통이다’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가 24.5%, ‘그렇다’가 20% ‘전혀 그렇지 않다’가 8.1%, ‘매우 그렇다’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45.3%, ‘보통이다’ 45.9%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 응답또한 개선되어 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현상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전공별(보컬, 악기, 작곡등)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1>과 같다.

<표Ⅲ-11> 전공별 커리큘럼 개설 여부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별(보컬,악기,작곡등)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9 (7.0)	3 (5.7)
	그렇지 않다	107 (19.3)	18 (33.9)
	보통이다	187 (33.8)	27 (50)
	그렇다	184 (33.2)	6 (11.3)
	매우 그렇다	36 (6.5)	0

<표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별 커리큘럼 개설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재학생은 ‘보통이다’가 33.8%, ‘그렇다’가 33.2%, ‘그렇지 않다’가 19.3%,

‘전혀 그렇지 않다’가 7%로 나타나 전공별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생은 ‘보통이다’가 50%, ‘그렇지 않다’가 33.9% , ‘그렇다’가 11.3%, ‘전혀 그렇지 않다’가 5.7%로 나타나 재학생 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편이었다.

‘교과목에 따른 효과적인 교재가 쓰여집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2>와 같다.

<표Ⅲ-12> 교과목에 따른 교재의 활용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교과목에 따른 효과적인 교재가 쓰여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6 (8.3)	3 (5.7)
	그렇지 않다	128 (23.1)	33 (62.2)
	보통이다	259 (46.7)	10 (18.9)
	그렇다	112 (20.2)	4 (7.5)
	매우 그렇다	10 (1.8)	3 (5.7)

<표Ⅲ-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목에 대한 교재가 활용에 대한 여부를 보면 재학생은 ‘보통이다’가 46.7%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가 23.1%, ‘그렇다’가 20.2%, ‘전혀 그렇지 않다’가 8.3%, ‘매우 그렇다’가 1.8%, 나타났다 재학생들은 교과목의 교재에 대한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62.2%, ‘보통이다’가 18.9%, ‘그렇다’가 7.5%,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로 나타났다 이결과 재학생들은 점점 개선되어지는 다양한 실용음악 학과의 커리큘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재로 배우고 있고 졸업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실용음악 커리큘럼에 따른 교직필수(없다면 제외), 전공필수, 전공 선택에 관한 학점의 구성은 합리적입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3>과 같다.

<표Ⅲ-13> 커리큘럼에 따른 학점 구성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실용음악 커리큘럼에 따른 교직필수(없다면 제외), 전공필수, 전공 선택에 관한 학점의 구성은 합리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4 (7.9)	9 (16.9)
	그렇지 않다	103 (18.6)	21 (39.6)
	보통이다	277 (50)	18 (33.9)
	그렇다	116 (20.9)	5(9.4)
	매우 그렇다	15 (2.7)	0

<표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리큘럼에 따른 학점 구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재학생은 ‘보통이다’가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그렇다’가 20.9%, ‘그렇지 않다’ 18.6%, ‘전혀 그렇지 않다’가 7.9%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39.6%, ‘보통이다’가 33.9%,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9%, ‘그렇다’가 9.4%로 나타나 재학생은 학점의 구성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반면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학교만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4>와 같다.

<표Ⅲ-14> 학교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의 여부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우리 학교만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 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82 (14.8)	3 (5.7)
	그렇지 않다	177 (31.9)	30 (56.6)
	보통이다	182 (32.8)	18 (34)
	그렇다	94 (16.9)	2 (3.8)
	매우 그렇다	20 (3.6)	0

<표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재학생은 ‘보통이다’가 32.8%, 그렇지 않다 31.9%,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8%, ‘그렇다’가 16.9%, ‘매우 그렇다’가 3.6%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그

렇지 않다'가 56.6%, '보통이다'가 34%, '전혀 그렇지 않다'가 5.7%, '그렇다'가 3.8%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특성화된 커리큘럼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많은 분포도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이 다양해지며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 학교만의 특색있는 커리큘럼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설된 커리큘럼은 실용음악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5>와 같다.

<표Ⅲ-15> 커리큘럼의 전문인 양성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개설된 커리큘럼은 실용음악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2 (7.6)	6 (11.5)
	그렇지 않다	111 (20)	28 (52.8)
	보통이다	240 (43.2)	12 (22.6)
	그렇다	132 (23.8)	6 (11.3)
	매우 그렇다	30 (5.4)	1(1.8)

<표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보통이다'가 43.2%, '그렇다'가 23.8%, '그렇지 않다'가 20%, '전혀 그렇지 않다'가 7.6%, '매우 그렇다'가 5.4%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52.8%, '보통이다'가 2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5%, '그렇다'가 11.3%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이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나타났지만 실용음악 커리큘럼을 이수한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는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볼 때 실용음악 학과를 졸업한 후에 실용음악 전문인을 양성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커리큘럼중 필요 또는 불필요한 과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6>과 같다.

<표Ⅲ-16> 필요 또는 불필요에 대한 과목의 필요성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커리큘럼중 필요 또는 불필요한 과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불필요한 과목이 매우 많다	64 (11.6)	27 (50.9)
	불필요한 과목이 어느 정도 있다	288 (51.9)	12 (22.6)
	잘 모르겠다.	90 (16.2)	3 (5.7)
	모든 교과목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	105 (18.9)	9 (16.9)
	모든 교과목이 필요성이 매우 높다.	8 (1.4)	2 (3.9)

<표Ⅲ-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 또는 불필요에 대한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재학생이 ‘불필요한 과목이 어느 정도 있다’가 51.9%, ‘모든 교과목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가 18.9%, ‘잘 모르겠다’가 16.2%, ‘불필요한 과목이 매우 많다’가 11.6% , ‘모든 교과목이 필요성이 매우 높다.’가 1.4%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은 ‘불필요한 과목이 매우 많다’가 50.9%, ‘불필요한 과목이 어느 정도 있다’가 22.6%, ‘모든 교과목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가 16.9%, ‘잘 모르겠다’가 5.7%, ‘모든 교과목이 필요성이 매우 높다.’가 3.9%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재학생, 졸업생 모두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 불필요한 과목이 많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졸업생은 불필요한 과목이 매우 많다는 절반가량의 응답이 나와서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용음악 커리큘럼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나 개설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의 서술형 문항은 <표Ⅲ-17>과 같다

<표Ⅲ-17> 도움 되는 커리큘럼

문항	도움되는 과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실용음악 커리큘럼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나 개설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상블 (합주실기)	68 (57.6)	12 (52.1)
	싱어송라이터	24 (20.3)	3 (13.0)
	레코딩	10 (8.5)	0
	재즈화성학	7 (5.9)	5 (23.8)
	미디편곡	6 (5.2)	2 (6.8)
	기초이론	3 (2.5)	1 (4.3)

<표Ⅲ-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 졸업생 모두 양상블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는데, 커리큘럼중 양상블을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과목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재학생의 20.3%는 싱어송라이터 과목이었는데, 주로 보컬의 답변이 많았다. 이는 실용음악학과의 특성상 본인이 작곡한 곡을 부르거나 연주를 해서 졸업연주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10%는 레코딩 이었으며, 연주하거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음기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레코딩 전공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학과내에서도 레코딩 전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의견으로는 즉흥연주기법, 부전공수업등이 있었다. 졸업생의 23.8%는 재즈화성학이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응답했는데 주로 악기전공들의 대답이 많았으며 이유로는 재즈화성학을 통해 즉흥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전공수업(이론)에 관한 문항

실용음악학과의 이론수업에 관한 질문이 6개, 서술형 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1번 문항으로 ‘전공수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에 대

한 결과는 <표Ⅲ-18>과 같다.

<표Ⅲ-18> 전공 수업의 형태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수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수강의	44 (7.9)	33 (62.2)
	세미나(학생발표)	103 (18.5)	3 (5.7)
	토론식학습	277 (49.9)	3 (5.7)
	교수강의+토론식학습	116 (20.9)	9 (16.9)
	기타	15 (2.8)	5(9.5)

<표Ⅲ-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토론식 학습' 49.9%, '교수강의+토론식학습' 20.9%, '세미나(학생발표)' 18.5%, '교수강의' 7.9%, '기타' 2.7%였으며 기타 2.7%의견으로는 컴퓨터 활용수업이 있었고, 졸업생은 '교수강의' 62.2%, '교수강의+토론식학습' 16.9%, '토론식 학습' 5.7%, '세미나(학생발표)' 5.7% , '기타' 9.4% 의견으로는 레코딩 수업, 컴퓨터 활용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전공수업의 형태가 예전엔 교수강의 위주였으나 현재 커리큘럼에서는 토론식 학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과목의 수업시간은 몇분입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19>와 같다.

<표Ⅲ-19> 전공 과목 수업시간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과목의 수업시간은 몇분입니까?	60분	309 (55.7)	32 (60.3)
	70분	18 (3.2)	3 (5.7)
	80분	38 (6.8)	7 (13.2)
	90분	67 (12)	2 (3.8)
	120분 이상	123 (22.3)	9 (17)

<표Ⅲ-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60분' 55.7%, '120분이상' 22.3%, '90분' 12%, '80분' 6.8%, '70분' 3.2%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60분 60.3%, '120분 이상' 16.9%, '80분' 13.2%, '70분' 5.7%, '90분' 3.8%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전공과목 수업시간은 60분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전공과목의 수강 인원은 몇 명 내외입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20>과 같다.

<표Ⅲ-20> 전공과목 수강인원수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과목의 수강 인원은 몇 명 내외입니까	5명 내외	19 (3.4)	0
	10명 내외	107 (18.2)	27 (50.9)
	20명 내외	213 (37.3)	15 (28.3)
	30명 내외	165 (32)	6 (11.3)
	40명 이상	51 (9.1)	5 (9.5)

<표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20명 내외' 37.3%, '30명 내외' 32%, '20명 내외' 19.2%, '40명 이상' 9.1%, '5명 내외' 3.4% 였고, 졸업생은 '10명 내외' 50.9%, '20명 내외' 28.3%, '30명 내외' 11.3%, '40명 이상' 9.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과목에 대한 수강인원 수는 각 학교의 학생 선발 인원과 관련이 있는데 실용음악학과가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명 내외로 선발하지만 음악 학부안에 속해 있거나 전공 하나만을 선발할 경우에는 10명 내외로 응답했음을 알수가 있었다.

'전공수업은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됩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21>과 같다.

<표Ⅲ-21>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수업은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1 (5.6)	3 (5.7)
	그렇지 않다	94 (16.9)	15 (28.3)
	보통이다	260 (46.8)	30 (56.6)
	그렇다	144 (25.9)	3 (5.7)
	매우 그렇다	26 (4.8)	2 (3.8)

<표Ⅲ-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보통이다’ 46.8%, ‘그렇다’ 25.9%, ‘그렇지 않다’ 16.9%, ‘전혀 그렇지 않다’ 5.6%, ‘매우 그렇다’ 4.8%로 순으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보통이다’ 56.6%, ‘그렇지 않다’ 28.3%,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 ‘매우 그렇다’가 3.8%로 나타났다. 이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보통이다’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와 전공수업은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의 계획서의 따른 수업은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22>와 같다.

<표Ⅲ-22>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의 이해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강의 계획서의 따른 수업은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9 (3.4)	3 (5.7)
	그렇지 않다	84 (15.1)	21 (39.6)
	보통이다	275 (49.7)	21 (39.6)
	그렇다	150 (27)	6 (11.3)
	매우 그렇다	27 (4.8)	2 (3.8)

<표Ⅲ-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보통이다’ 49.7%, ‘그렇다’ 27%, ‘그렇지 않다’ 15.1%, ‘매우 그렇다’ 4.8%, ‘전혀 그렇지 않다’ 3.4%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가 각각 39.6%, ‘그렇다’ 11.3%, ‘전혀 그렇

지 않다' 5.7%, '매우 그렇다' 3.8%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재학생은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졸업생은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업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료(파워포인트, 음악활용 프로그램, 동영상, 인쇄물)가 충분히 활용되어 집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23>과 같다.

<표Ⅲ-23> 수업의 자료 활용도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수업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료(파워포인트, 음악활용 프로그램, 동영상, 인쇄물)가 충분히 활용되어 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5 (6.3)	6 (11.3)
	그렇지 않다	109 (19.6)	25 (47.1)
	보통이다	234 (42.2)	18 (34)
	그렇다	150 (27)	3 (5.7)
	매우 그렇다	27 (4.9)	1 (1.9)

<표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보통이다' 42.2%, '그렇다' 27%, '그렇지 않다' 19.6%, '전혀 그렇지 않다' 6.3%, '매우 그렇다' 4.9%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 47.1%,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3%, '그렇다' 5.7%, '보통이다' 34%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1.9%로 나타났다. 이결과 재학생은 수업 자료 활용도가 충분이 이루어진다는 답변이었지만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실용음악학과에 대한 학교의 재원이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업의 제반 시설들이 보다 나아져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리큘럼의 내용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많이 반영되어집니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Ⅲ-24>와 같다.

<표Ⅲ-24>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 여부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커리큘럼의 내용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많이 반영되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5 (4.5)	6 (11.3)
	그렇지 않다	88 (15.9)	27 (49.0)
	보통이다	300 (54.1)	18 (33.9)
	그렇다	122 (21.9)	3 (5.8)
	매우 그렇다	20 (3.6)	0

<표Ⅲ-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보통이다’ 54.1%, ‘그렇다’ 21.9%, ‘그렇지 않다’ 15.9%, ‘전혀 그렇지 않다’ 4.5%, ‘매우 그렇다’ 3.6%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 49.0%, ‘보통이다’ 33.9%, ‘전혀 그렇지 않다’ 11.3%, ‘그렇다’ 5.8%로 응답하였으며 재학생은 커리큘럼의 내용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지만 재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전공과목중에 보충되거나 심화되어야 할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의 서술형 문항은 <표Ⅲ-25>와 같다.

<표Ⅲ-25> 보충, 심화 되어야 할 과목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과목중에 보충되거나 심화되어야 할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양상블	62 (35.0)	8 (22.8)
	화성학	11 (6.2)	1 (2.8)
	미디(컴퓨터음악)	17 (9.6)	1 (2.8)
	음악사(Jazz 제외)	6 (3.4)	2 (6.0)
	편곡(재즈즉흥)	21 (11.8)	5 (14.2)
	무대연주	32 (18.2)	9 (25.7)
	전공실기	28 (15.8)	9 (25.7)

<표Ⅲ-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양상블’ 35%, 무대연주 ‘18.2%’, ‘전공실기’ 15.8%, ‘편곡(재즈즉흥)’ 11.8%, ‘미디’(컴퓨터음악) 9.6%, ‘화성학’ 6.2%, ‘음악사’(Jazz 제외) 3.4%순으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무대연주’ 25.7%,

‘전공실기’ 25.7%, ‘양상블’ 22.8%, ‘음악사’(Jazz 제외)’ 6.0%, ‘화성학’, ‘미디(컴퓨터음악)’ 각각 2.8%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양상블이 가장 보충 되거나 심화할 과목으로 뽑았고 무대연주는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의 연주 말고 학교 외에서도 행사나, 공연을 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미디 수업은 학생간의 편차가 심하고 컴퓨터 등 기자재가 낙후 되어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재즈즉흥은 커리큘럼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수업시간이 짧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며, 음악사는 재즈의 역사를 제외한 대중음악, Rock, Pop음악 등을 보충 또는 심화되어야 할 과목으로 응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전공별로 이론수업에 대한 편차가 심한데 그에 따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공에 따른 커리큘럼을 배우고 싶다 등이 있었다. 졸업생은 무대연주와, 전공실기를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렸는데 무대연주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공연현장과 연계되어 심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전공실기 과목 학점을 더 늘려 가장 많이 배워야 한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3) 전공실기(합주,양상블)에 관한 문항

실용음악학과의 실기수업에 관한 질문이 4개, 서술형 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1번문항으로 ‘전공실기 레슨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의 질문의 결과는 <표Ⅲ-26>과 같다.

<표Ⅲ-26> 전공실기 레슨 여부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실기 레슨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0 (5.4)	9 (16.9)
	그렇지 않다	87 (15.6)	18 (33.9)
	보통이다	207 (37.2)	12 (22.6)
	그렇다	174 (31.3)	10 (18.8)
	매우 그렇다	57 (10.5)	4 (7.8)

<표Ⅲ-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보통이다’ 37.2, ‘그렇다’ 31.3%, ‘그렇지 않다’ 15.6%, ‘매우 그렇다’ 10.5%, ‘전혀 그렇지 않다’ 5.4%, 순으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 33.9%, ‘보통이다’ 22.6%, ‘그렇다’ 18.8%, ‘전혀 그렇지 않다’ 16.9%, ‘매우 그렇다’ 7.8% 로 나타났고 재학생은 전공실기 레슨이 보통이거나 그렇다로 대답이 가장 많았지만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았다.

전공수업(이론)에 관한 문항에서는 재학생은 수업자료 활용도 또는 강의 계획서에 의한 수업, 커리큘럼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많이 반영 되어지는가에 대해 ‘보통이다’란 응답이 많았지만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예전에는 낙후된 연습실과 기자재들이 많았고 정립되지 않은 커리큘럼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학내에서 실용음악학과에 많은 재원을 쏟아 수업활용 기자재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실기 수업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의 결과는 <표Ⅲ-27>과 같다.

<표Ⅲ-27> 전공실기 수업시간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실기 수업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1 (3.7)	3 (5.7)
	그렇지 않다	61 (11)	6 (11.3)
	보통이다	150 (30)	8 (15)
	그렇다	196 (35.3)	22 (41)
	매우 그렇다	127 (20.9)	14 (27)

<표Ⅲ-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그렇다’ 35.3%, ‘보통이다’ 30%, ‘매우 그렇다’ 20.9%, ‘그렇지 않다’ 11%, ‘전혀 그렇지 않다’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은 ‘그렇다’ 41%, ‘매우 그렇다’ 27%, ‘보통이다’ 15%, ‘그렇지

않다’ 11.3%, ‘전혀 그렇지 않다’ 5.7%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전공실기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실기 수업이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무대연주, 음악행사 참여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의 결과는 <표Ⅲ-28>과 같다.

<표Ⅲ-28> 전공실기의 외부공연 수업 여부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실기 수업이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무대연주, 음악행사 참여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1 (3.8)	2 (3.7)
	그렇지 않다	61 (11)	7 (13)
	보통이다	150 (27)	9 (16.9)
	그렇다	196 (35.3)	27 (51)
	매우 그렇다	127 (22.9)	8 (15)

<표Ⅲ-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그렇다’ 35.3%, ‘보통이다’ 27%, ‘매우 그렇다’ 22.9%, ‘그렇지 않다’ 11%, ‘전혀 그렇지 않다’ 3.8%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은 ‘그렇다’ 51%, 보통이다 16.9%, ‘매우 그렇다’ 15%, ‘그렇지 않다’ 13%, ‘전혀 그렇지 않다’ 3.7%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외부 공연 수업이 전공실기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공실기의 수업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됩니까?’의 질문의 결과는 <표Ⅲ-29>와 같다.

<표Ⅲ-29> 전공실기의 실력향상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실기 수업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5 (4.5)	5 (9.4)
	그렇지 않다	59 (10.6)	8 (15)
	보통이다	201 (36.2)	20 (37.7)
	그렇다	210 (37.9)	7 (13.2)
	매우 그렇다	60 (10.8)	13 (24.7)

<표Ⅲ-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보통이다’ 36.2%, ‘그렇다’ 37.9%, ‘매우 그렇다’ 10.8%, ‘그렇지 않다’ 10.6%, ‘전혀 그렇지 않다’ 4.5%순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은 ‘보통이다’ 37.7%, ‘매우 그렇다’ 24.7%, ‘그렇지 않다’ 15%, ‘그렇다’ 13.2%, ‘전혀 그렇지 않다’ 9.4%로 나타났다. 전공실기는 실력향상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응답하였다.

‘전공실기 수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한가지 이상 간단히 써주세요.’ 의 서술형 문항은 <표Ⅲ-30>과 같다.

<표Ⅲ-30> 전공실기 수업 요구사항

문항	답변내용	재학생 (퍼센트)	졸업생 (퍼센트)
전공실기 수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한가지 이상 간단히 써주세요	жат은 휴강	32(23.0)	6 (31.6)
	다양한 장르 수업	7 (5.0)	3 (15.8)
	체계적 커리큘럼 수업	45 (32.3)	8 (42.1)
	수업장소	8 (5.7)	0
	수업시간	47 (34)	2 (10.5)

<표Ⅲ-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수업시간’ 34%, ‘체계적 커리큘럼 수업’ 32.3%, ‘жат은 휴강’ 23%, ‘수업장소’ 5.7%, ‘다양한 장르 수업’ 5.0%순으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체계적인 커리큘럼 수업’ 42.1%, ‘жат은 휴강’ 31.6%,

‘다양한 장르 수업’ 15.8%, ‘수업시간’ 10.5%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이 가장 높은 순위로 뽑은 수업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학교 행사나 교수님 개인 일정으로 인해 휴강이 잦은 편이며, 수업 받는 장소가 학교가 아닌 먼 곳으로 가서 받아야 해서 불편을 느끼고, 다양한 장르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졸업생들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장 높은 순위로 뽑았는데 전공실기를 배울 때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양상블 수업에 전공별 양상블(기타, 건반, 보컬등) 수업하는 것 외에도 전공별로(건반만 같이, 보컬만 같이) 양상블 수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재학생, 졸업생 포함하여 응답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며 미국 재즈작곡 학부의 커리큘럼을 알아보고 실용음악을 전공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 조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1990년대에 개설된 청운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김천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는 학기마다 전공실기는 개설되어 있고 시창청음, 실용음악편곡, 재즈 화성학, MIDI 등은 전공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교과목으로 청운대학교 포트폴리오 제작, 동덕여대 클래식기타, 김천대 콘서트 콰이어, 부산예술대 프로젝트실습, 계명대 실용음악 세미나 등이 나타났다. 미국은 Arranging(편곡), Orchestration(관현악 편곡)은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고, 특정 교과목으로 버클리 음대는 재즈작곡학부, 공연학부(베이스, 브라스, 청음전공, 앙상블 학부, 기타, 피아노, 현악기)로 구성되어있고, NYU는 재즈학부, 보컬 교육방법, 전자음악이었으며 University of the Arts는 재즈작곡, 기악, 보컬로 커리큘럼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의 커리큘럼이 전공에 따른 커리큘럼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수가 있었다.

둘째, 국내 대학의 앙상블(합주실기) 수업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곡을 중심으로 학생들끼리 실용음악학부 안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버클리 음대는 유명한 앙상블이 많이 있기로 알려져 있으며 26개의 앙상블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장르를 오디션을 본 후 학교내에서 일년내내 지정된 날짜에 공연을 할수 있도록 지정해 놓았다. NYU는 교수와 학생간의 무대를 같이 공연을 할수 있으며, 재즈 아티스트와 비공식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University of the Arts는 오디션 없이 원하는 앙상블 어디에든 참여 할

수 있고, 공연이 있는 날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학교에서의 공연 뿐만이 아닌 상업적인 공연(콘서트)도 참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 앙상블 수업이 아티스트와의 공연, 학교에서의 공연 뿐만이 아닌 상업적인 공연 등 전문화된 수업으로 바뀌어야 함을 알 수가 있었다.

셋째, 국내의 실용음악 대학 커리큘럼은 공통과목을 비교해 보면 시창청음, 화성학, 뮤지컬 연기, 영상음악실기, 디지털 레코딩, 편곡법 등 많은 과목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국외의 커리큘럼 버클리 음대는 재즈 수업 외에도 예술적 기교, 창조 토론 연구, 예술의 역사, 사회과학, 서부음악의 역사, 문헌, 수학/ 자연과학 등 다른 과목을 학습할 수 있었고, NYU는 청음, 음악이론, 키보드 하모니 즉흥을 4학기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수할 수 있도록 나타났고, University of the Arts는 앙상블 밴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마다 커리큘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 커리큘럼 인식 조사 문항을 세분류로 나누어 놓았으며 이것을 정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리큘럼에 관한 문항으로 ‘커리큘럼 이론, 실기 비율의 적절성’, ‘전공별 커리큘럼 개설 여부’, ‘교과목에 따른 교재의 활용’, ‘커리큘럼에 따른 학점 구성’, ‘학교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의 여부’, ‘커리큘럼의 전문인 양성’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은 ‘보통이다’,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가 생겨났는데, 실용음악학과는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과목이 개설되거나 폐지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사려되어진다. ‘필요 또는 불필요에 대한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은 ‘불필요한 과목이 어느정도 있다’, 졸업생은 ‘불필요한 과목이 매우 많다’로 나타나

커리큘럼에 불필요한 교과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결해야 할 점으로 보여진다. ‘도움되는 커리큘럼’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앙상블(합주실기)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실용음악학과의 특성상 앙상블 수업을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둘째, 전공수업(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수업의 자료 활용도’, ‘학업 성취도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 ‘보통이다’, 졸업생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는데 수업의 자료활용도는 수업 기자재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가 났다. 매년 커리큘럼이 단계별로 구체화되면서 학업 성취 평가 반영 여부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의 이해’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 졸업생 모두 ‘보통이다’가 높은 순위였는데, 강의 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인 수업을 받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 심화 되어야 할 과목’의 서술형 문항으로 재학생, 졸업생 모두 앙상블이 높게 나타났는데 앙상블의 다양한 수업과 추가적인 개설이 되어야 하겠다.

셋째, 전공실기(앙상블, 합주실기 포함)에 관한 문항으로 ‘전공실기 레슨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은 ‘보통이다’, 졸업생은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는데, 전공실기 수업이 다양한 교과목으로 점차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차이가 났다. ‘전공실기 수업시간’, ‘전공실기의 외부공연 수업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 졸업생 모두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는데 전공실기 수업시간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실기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뿐만이 아니라 외부 공연과의 연계된 수업의 연장이 되어야 하겠다. ‘전공실기의 실력향상’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 졸업생 모두 ‘보통이다’가 높게 나타나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실기 수업 요구사항’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재학생, 졸업생 모두 체계적인 커리큘럼 수업이란 답변이 높게 나

타났는데, 전공 실기를 배울때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단계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은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때 전공에 따른 커리큘럼의 세분화, 학교마다 특징을 가진 다양한 교과목, 앙상블 수업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문지를 통해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인식 조사를 알아본 결과 재학생이 졸업생 보다 긍정적인 대답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점점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된 실용음악 커리큘럼으로써 많은 실용음악인이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신문 및 방송 매체>

스포츠 서울 (2012.09.16) “싸이에게 벌어진 비현실적인일 3가지 ”.
KBS 다큐멘터리 3일, “아마르 꼬레아 - 칠레 K-POP 콘테스트”.
YTN 연합뉴스 (2012.09.30) , “모스크바서 K-POP 전문잡지 창조”.

<단행본>

김영주(2006), **청년 대중음악문화 형성의 배경**,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창남(2012). **대중음악의 이해**. 경기도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학선(2012), **K·POP 세계를 홀리다**. 서울 종로: 을유 문화사.
박성서(2010), **한국 전쟁과 대중가요**. 서울 마포: 책이있는 풍경.
박준흠 (2008), **한국 음악창작자의 역사**, 경기도 파주: 한울.
이영미(2000), **한국 대중가요사**. 서울 서초: 시공사.
이영미(2011),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른다**. 서울 마포: 두리미디어.
이혜숙·손 석(2003), **한국 대중음악사**, 서울 마포: 리즈앤북.

<학회지>

김은섭(2006), “버클리음악대학의 교육체계 연구”, **음악과 민족**, 31권, 255~288p
(34P).
이경분(2002), “1920-30년대의 ‘실용음악’ ”, **민족음악학회**, 23권, 44~62p (19p).
이에스더(2008), “ 실용음악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7권 133~146p (14p)
장유정(2008) “한국 대중음악사 기술을 위한 기초작업: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대중음악학회**, 통권 1호 p78.

<논문>

김선주(2011), 7학년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수(2011),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 음악학 석사논문.

박선영(2007), 대학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손 옥(2002),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석사논문.

신계열(2011), 학제에 따른 실용음악학과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뉴미디어 음악학전공 석사논문.

안용성(2007), 국내·외 실용음악과 교과과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공연행정학과 석사논문.

이정선 (2010),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 발달과정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황정희(2008),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 입시 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 음악학과 석사논문.

<인터넷 사이트>

www.dongduck.ac.kr

<http://www.gimcheon.ac.kr/>

<http://www.chungwoon.ac.kr/>

www.nyu.edu
www.berklee.edu
www.uarts.edu
www.newschool.edu/jazz
www.unt.edu
www.ccny.cuny.edu
www.purchase.edu
www.ftc.edu
www.msmnyc.edu
www.juilliard.edu
www.wpunj.edu
www.csnu.edu
www.csulb.edu
www.calstatela.edu
www.usc.edu
www.uclaextension.edu
www.mi.edu
www.lamusicacademy.edu
www.ccmcollege.com
www.mcnallysmith.edu
www.colum.edu
www.fullsail.edu
www.miami.edu
www.mtsu.edu

ABSTRACT

The Analysis and Perception research of the domestic applied Music major Curriculum

Seung hee, Ha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of practical music departments in Korea, investigate the curriculum of jazz composition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nduct an awareness investigation of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d students on the curriculum. For this, four-years-course colleges—Chungwoon University, Dongduk Women's University, Gimcheon University—and two-years-course colleges—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usan Arts College, Keimyung University—established in the 1990s were selected for comparison analysis, the curriculum of jazz composition at the practical music departments in the 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Berklee College of Music, NYU, The University of the Arts—were investigated, and awarenes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hrough survey on 555 undergraduate and 53 graduated students in the practical music

department of Seoul and Gyeonggi-do area.

In order to compare·analyze the curriculum of practical music departments in this research, common subjects and specific subjects were separated for each of the 3 four-years-course colleges and 3 two-years-course colleges in Korea, and the same method was applied to the curriculum of jazz composition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colleges. Also, in order to conduct an awareness investigation on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d students, questio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 questions on the curriculum; questions on major-related courses (theories); and questions on major-related practises (ensemb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jor-related practises were opened every semester in practical music departments of two-years-course colleges and four-years-course colleges in Korea and were commonly mandatory to complete them. The curriculum based on the major in practical music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were all separated differently.

Secondly, 'sight-reading·music dictation', 'jazz harmonics', 'practical music arrangement', etc were all opened in practical music departments of four-years-course colleges and two-years-course colleges in Korea, and other specific subjects were 'making portfolio' in Chungwoon University, 'classical guitar' in Dongduk Women's University, 'concert choir' in Gimcheon University, 'project practise' in Busan Arts College, and 'practical music seminar' in Keimyung University, etc.

In the case of practical music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basic keyboard', 'arrangement', etc were all opened in all the schools, and there

were many other specific subjects. For Berklee College of Music, there was a subject about various histories, for NYU, students from practical music department could take classes from other majors, and for The University of the Arts, liberal arts subjects and science research courses were opened, showing difference from those in Korea.

Thirdly, on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curriculum, 49.9%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replied 'average', 66% of the graduated students replied 'no' to the question of appropriate theory/practise ratio in the curriculum. On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major-related courses (theory), 49.9% of the undergraduate replied 'debate-style of learning' and graduated students replied 'lecture by professor' to the question of preferred teaching style of major-related courses. On the questions of major-related practise lessons, 37.2% of undergraduate students replied 'average', 33.9% of the graduated students replied 'no', showing that there were more positive replies from the undergraduate students and more negative replies from the graduated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re must be a subdivision in the curriculum of the practical music departments in Korea according to respective majors, and a variety of subject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must be opened. Also, see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 undergraduate students replying positively and graduated students replying negatively to the ques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iculum of the practical music departments is indeed improving.

실용음악과 커리큘럼 인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실용음악과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실용음악학과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용음악과에 대한 교과과정의 인식 조사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내외이며, 우편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메일을 이용해서 간단히 문항과 답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 성신여자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한승희 드림
이메일: winhans@naver.com,
전화 : 010-2723-0020

(응답요령)

1. 각 항목중 해당란에 V표로 표시해 주세요.
2. 주관식 질문에는 간략히 서술해 주세요.

1. 성별 (남, 여)
2. 전공 ()
3. 학교의 유형 ①2년제(재학생, 졸업생),
②3년제(재학생, 졸업생),
③4년제(재학생, 졸업생)
4. 직업 : ①현직교사 ②학원 강사(개인레슨 포함) ③회사원 ④학생 ⑤기타 ()

♣ 실용음악학과에 개설된 커리큘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실용음악학과의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실용음악 커리큘럼은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과정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전공별(보컬,악기,작곡등)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교과목에 따른 효과적인 교재가 쓰여집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실용음악 커리큘럼에 따른 교직필수(없다면 제외), 전공필수, 전공 선택에 관한 학점의 구성은 합리적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우리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개설된 커리큘럼은 실용음악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커리큘럼중 필요 또는 불필요한 과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 ① 불필요한 과목이 매우 많다. ② 불필요한 과목이 어느 정도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모든 교과목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 ⑤ 모든 교과목이 필요성이 매우 높다.

9. 실용음악 커리큘럼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나 개설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다음은 실용음악학과에서 실시되는 전공수업(이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공수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교수강의 ② 세미나(학생발표) ③ 토론식 학습 ④ 교수강의+토론식 학습 ⑤ 기타

2. 전공과목의 수업시간은 몇분입니까?

- ① 60분 ② 70분 ③ 80분 ④ 90분 ⑤ 120분이상 ⑥ 기타 ()분

3. 전공과목의 수강 인원은 몇 명 내외입니까?

- ① 5명 내외 ② 10명 내외 ③ 20명 내외 ④ 30명 내외 ⑤ 40명이상

4. 전공수업은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강의 계획서의 따른 수업은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수업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료(파워포인트, 음악활용 프로그램, 동영상, 인쇄물)가 충분히 활용되어 집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커리큘럼의 내용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많이 반영되어 집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전공과목중에 보충되거나 심화되어야 할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다음은 실용음악학과에서 실시되는 전공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전공실기 레슨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전공실기 수업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전공실기 수업이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무대연주, 음악행사 참여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전공실기의 수업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전공실기 수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한가지 이상 간단히 써주세요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